

세상을 전진하게 한다

2024 ITF 총회

총회 비전 및 결의안
2024 - 2029년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ITF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세계 최고의
운수기관으로서 인정 받는 민주적이며 회원 주도적인
연맹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투쟁하고, 150여개국의 700개 이상의 가맹
노동조합들을 연결시켜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와
평등, 정의를 확보한다. 우리는 세계 전역의 약 1,650만
운수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목차

총회 비전	7
1부: 변화를 주도하는 운수노동자들	8
2부: 위기와 기회	10
3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	12
A. 운수노동자들의 권리	12
B.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	13
C. 운수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15
D. 노동의 미래 구축하기	17
E. 글로벌 공급망 내 책임	19
F. 운수를 지속 가능하게 함	20
4부: 변화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22
멤버십 성장 및 활성화	23
혁신적 캠페인	24
글로벌 및 지역 정책에 영향력 행사하기	26
결론: 세상을 진전시키는 운수노동자	28

총회 결의안	29
A. 권리	
A01: 운수노동자들의 권리	30
A02: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상황	33
A03: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의 위기	35
A04: 예멘	36
A05: 사헬 국가들의 위기	37
A06: 모든 인간의 평화와 보안에 대한 권리는 각국 정부와 정부간 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38
A07: 극우 무관용	40
A08: 에스와티니(eSwatini)	42
A09: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44
A10: 중앙 및 동부 유럽에 걸쳐 운수노동자조합을 강화함	46
A11: 사회 보장 - 모든 운수노동자의 인권	48
A12: 우리의 집단 기억을 위해	50
A13: 국경을 넘는 비공식 도로운수노동자들의 조직화 확대	51
A14: 항공 노동자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	53
A15: 민간항공 노동자를 위한 보다 나은 글로벌 규제	55
A16: 항공 노동과 사회 문제는 반드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운수 경제개발 의제에서 다뤄져야 한다.	57
A17: 우크라이나 운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59
A18: 호주 전략선단	61
A19: 파키스탄 철도 노동조합 권리	62
B. 평등	
B01: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	64
B02: 성소수자(LGBT+)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	67
B03: 전 세계 운수 부문의 장애 평등	69
B04: ITF의 청년운수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71
B05: 앞으로 나아가기: 지난 25년 ITF 여성	73
B06: 청년 해상노동자를 위한 노동의 미래를 촉진함	75
B07: 청년 교육	77

C. 보건안전

C01: 운수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78
C02: 안전하게 귀가시켜주세요	81
C03: 승무원 피로 위험 경감 - 항공 보건안전 및 규제 준수 보장	83
C04: 자유화 모델로 인해 공항의 보건안전이 위협에 처했다.	85
C05: 수산업의 양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87

D. 노동의 미래

D01: 노동의 미래 구축하기	90
D02: 사무직 노동자 채용 및 조직화	93
D03: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차원적 단체 보장!	94
D04: 상업 항공운수 내 2인 조종사 비행 승무원을 유지하고 승무원 인원 감축 운항을 거부함.	95
D05: 무인 열차 운행에 관하여	97
D06: 도로 공공운수 내 자율주행차	99
D07: 마이크로트랜짓(Microtransit)	101

E. 책임성

E01: 글로벌 공급망 내 책임	102
E02: 운수 공급망 전체에 걸친 안전운임 원칙과 노조 설립 권한	105
E03: 머스크(MAERSK) 공급망 전반의 연대	107
E04: 글로벌 지속 가능 금융 전략 속 인권 및 노동 기준 고취	109
E05: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으로서의 파나마 운하	111
E06: 우리 지역 내 ITF 내륙항해 실무단의 구조를 강화함	113
E07: 항공운수노동자의 권리와 자유 헌장을 수립함	114
E08: 항공 공급망의 규제 완화 및 파편화의 영향에 맞서 투쟁함	116
E09: 선주배상책임보험의 비효율성 해결	118
E10: ITF와 파리 MOU 간 협력 증진	120
E11: 국제교섭기구(IBF)에 대한 지지	121
E12: 칠레의 해상연안무역 보호	122

F. 지속 가능성

F01: 운수를 지속 가능하게 함	124
F02: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철도에 투자함	127
F03: 통합철도회사의 해체와 공공운수 부문의 민영화 저지	128
F04: ITF 연안대륙붕정책 검토	130

총회 비전

1부:

변화를 주도하는 운수노동자들

운수노동자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는 운전기사이자, 배달원이고, 항만 노동자이며, 어업인이고, 조종사, 승무원, 엔지니어, 청소부, 출장연회업자, 매표원, 공항 노동자, 창고 노동자이다. 우리는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공식 및 비공식 노동자이며, 모든 장소를 오가며, 모든 지역사회를 오가며, 사람과 재화, 용역을 옮긴다. 재화의 90%를 해상 노동자들이 운송하는데, 이는 **연간 총 14조 미 달러**에 달한다. 수십억 명의 승객들이 매일 육로와 해로, 공로로 도시와 국가, 국경을 안전하게 넘나든다. **열명 중 아홉명**은 운수를 중요한 공공서비스로 인정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멈추었을 때, 운수노동자들은 이례적으로 힘든 환경에서도 전 세계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언제나 그랬든, 우리는 음식과 의약품, 승객, 의사, 학생, 교사, 주요 노동자들, 공급망, 무역,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계속 움직이게 했다.

운수노동자들은 핵심 공급망과 시장, 사회를 연결하는 전 세계 경제의 엔진이다. 즉,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고 주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운수는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자 미래이다.

130년 넘게, 운수노동자들은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보호하고 운수업을 핵심 공공서비스로 진일보시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조직하고

보여주었다. ITF와 가맹 노동조합들은 국제 노동계급 운동 구축을 위해 단결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노동이자 다양성이다. 우리의 규약은 우리의 평화와 정의, 존중과 평등의 가치와 보다 나은 세상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명료히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운수노동자들이 세상을 진전시킨다’는 우리의 2024-2029 비전에 착수했다. 이는 운수업을 변모시키고, 모두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와 전략이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존엄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모두가 두려움과 차별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모든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와 번영의 원동력으로서 자신이 사회에서 맡은 중대한 역할을 인정 받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믿는다.

우리는 언제나 노동자들을 단결시켜왔다. 우리는 권위주의와 탐욕, 고통에 맞서 싸웠고, 전쟁과 핵 긴장,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에서 살아남았으며, 산업과 사회 변화 속에서 권리와 평등, 정의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불평등 심화와 인권에 대한 공격 증가, 권위주의의 대두와 부패, 기업의 탐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고 기후 재앙이 막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하나의 연대의 목소리로 단결한다.



**130년 넘게, 운수노동자들은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보호하고 운수업을 핵심 공공서비스로 진일보시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조직하고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산업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우리는 조직화와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에게로 권력을 되돌리고 있다.

ITF는 각국의 운수노동조합들이 가맹한 특유의 민주적인 노동조합연맹이다. 민주적인 구조는 집단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 우리의 산업적 장점은 더 나은 권리와 조건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우리 선원들이 세계 유일의 글로벌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역사에서 배우고 모든 운수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산업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 운수노동자, 여성 운수노동자, 성소수자 (LGBT+) 노동자, 이주 노동자, 원주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소수 노동자, 비공식 노동자, 소외 계층 및 노동자 계층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만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의 집단적 힘으로 세상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2부:

위기와 기회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후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절망에 희망으로 대응하며 전 세계적으로 연대와 노동쟁의 행위, 노동자 권력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다. ITF는 이러한 전 세계 운동에 운수노동자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세상을 보다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돕는 수단이다.

우리는 보건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약 3백만 명의 노동자들의** 생명과 GDP의 4% 가량이 열악한 산업안전보건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임금 하락, 업무의 비공식화, 비용 절감, 사회보장제도 축소, 하도급 및 기타 부정적인 경제적 압력은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자를 직장과 가정, 출퇴근길에 부상, 폭력, 괴롭힘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인플레이션, 절세와 조세 회피, 민영화, 규제 완화, 부채, 임금 삭감, 노동기준에 대한 공격,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이주민 착취,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의 위험, 부의 불평등 심화, 불안정한 일자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급망 위기 등을 가속화시켰다. 여성 운수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배제와 저평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급망의

파편화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최상층 계급의 독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운수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지속 불가능한 모델의 실질비용을 지불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탐욕을 투명성과 책임성, 권리, 평등,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무역 모델로 대체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이해와 대표성을 갖춘 유일한 공급망 주체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 시장의 실패, 불평등의 대두, 노동자의 권리 박탈은 극우, 외국인 혐오증, 권위주의에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가 공격 당하고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 역사를 통해 알 듯이, 증오와 인종차별, 폭력의 첫째 피해자는 노동조합원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LGBT+) 커뮤니티, 원주민, 장애인, 기타 소수자 커뮤니티이다. 다시 한 번, 운수노동자와 노동조합, ITF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움직임에 맞서 투쟁하는 최전선에서 있다.

2018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고국을 떠나야 했고, **수천만 명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남반구에서 발생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분쟁과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공급망의 파편화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최상층 계급의 독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진: REUTERS

평균 **2,150만 명이** 자연재해로 인해 강제로 이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실존하며, 국가 간 긴장 고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자간 기관의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ITF와 그 구성 조직들은 모두 평화와 평등, 상호 이해를 옹호한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어 인간의 삶이 의존하는 자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 상황은 특히 부채 위기로 인해 사회적 및 환경적 우선순위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남반구 국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반구 국가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치인과 상사에게 도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용인과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송노동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ITF와 가맹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는 운동 단체이다. 우리는 도전에 응하고 승리할 것이다.

3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 세계 운수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공동의 목소리인 ITF는 운수노동자들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들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운수노동자들의 임금 및 조건을 개선하는 것부터 운수업은 물론 더 넓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운수노동자들은 매일 문제를 해결하며, 가장 처음 대응하는 업계 전문가들이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 투자자, 기타 기관의 집단적 요구사항이다.



운수노동자들의 권리

직장은 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이다.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규제 완화, 비정규직화, 기타 불안정한 비표준 고용 형태 등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삶과 생계가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단체 교섭과 노조에 가입하고 결성할 권리가 약화되고 있다.

파업권은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한다. 시위와 파업, 노동쟁의 행위에 참여할 권리는 국제 연대의 토대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노동자들과 그 노동조합들과 나란히 서서,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과 조건은 단체교섭을 통해 가장 먼저 정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의 탐욕이 우리가 어렵게 쟁취한 보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도록 운수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에 맞서고 있다. 우리는 파업권을 옹호하고 홍보하며 전 세계 운수노동자들의 공정하고 적절한 생활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운수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자금 지원과 사회적 보호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공식 경제든 비공식 경제든,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반복되는 임시직 계약은 표준적이고 영구적인 고용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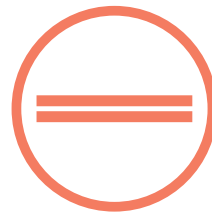
국제 노동기준은 존중되고,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ILO 204호 권고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운수노동자들이 비공식 경제로부터 공식 경제로 이동하도록 공조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공식 경제든 비공식 경제든,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상 진화하는 운수업 운영의 변화(합병, 인수 또는 양도로 인한 변화 포함)를 고려할 때, 사용주는 노동조합에 그러한 변화를 합리적으로 통지하여 고용 기준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고용이 종료되는 노동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받거나 이를 대신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모든 활동에서 운수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연대를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든 가맹조직들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운수업에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 기타 기관과의 관계를 통해,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파업권 등 기본권 존중은 타협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

전 세계적으로 운수업 사용인들은 여성이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운수업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서 과대 대표되는, 고도로 성별화된 산업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남성 지배적인 운수업에서 여성은 진입 및 승진 시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하고 폭력과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생식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은 불안정성 증가, 임금 및 고용 조건의 저하, **불안정성 증가**가 특징인 직업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 **청년 노동자들의 약 77%**가 사회적 보호 및 기타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고용 형태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운송 부문에서 **청년층의 비공식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 노동자들은 점점 더 적대적인 세상에서 폭력과 착취에 더 많이 노출되고 사회적 보호를 덜 받고 있다. 장애가 있는 운수노동자들은 차별 받는다. 많은 국가의 성소수자(LGBT+)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차별과 폭력,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수준의 불평등,

인종주의, 차별, 낙인에 맞서고, 불의를 폭로하며,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경을 넘는 운수노동자들은 특히 이러한 행동의 영향에 취약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동등한 기회, 성평등,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대표성 있는 리더십을 옹호한다. 우리는 직장 내 인종차별, 여성혐오, 가부장제, 고정관념, 차별, 낙인에 맞서고 있다. 우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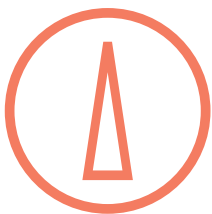
젠더 전환적인 운수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을 포함하여 업계의 문화와 관행에 존재하는 차별-교차적 차별 포함-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성평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은 운송 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 성평등은 운수업 의제 전반에 걸쳐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우리의 운동 내 여성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여성 운수노동자들의 가시성과 지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직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강력한 노동조합에는 여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 행동주의를 강화하고, 여성 운수노동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보장하며, 여성 운수노동자를 위한 성과를 창출하고 더 강력하고 평등한 노조를 구축하여 보다 폭넓은 업계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ILO 협약 156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고, 가능한 한 자신의 고용과 가족에 대한 책임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운수업 사용주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의 제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가능하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규정해야 한다.

강력한 노동조합에는 청년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동원해야 한다. 더 많은 청년 노동자를 채용하고, 노조에 청년 전용 체계와 공간을 만들고, 기후정의, 성평등, 이주, 정신건강 등의 사안을 포함한 청년 리더십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의사결정에서 청년 노동자가 대표성을 갖고, 캠페인을 주도하며, 착취와 사상자가 발생하며 불안정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직장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힘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부주의한 사용인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하고, 적절한 표준을 이행해야 한다.



운수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ILO는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업무 관련 요인으로 인해 293만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395만 명이 치명적이지 않은 산업재해로 고통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수업에서는 수백만 명이 부주의, 괴롭힘, 강압, 폭력, **적절한 위생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한 노동시간 등 가장 기본적인 필요의 부재로 인해 예방 가능한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직장에서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운수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복지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안전한 직장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노조 운동과 조직화, 캠페인의 핵심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ITF는 노동자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고 운수노동자들이 직장 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산업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OSH)이 기본권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 세계 노조 운동의 대성공이며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부주의한 사용인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하고, 적절한 표준을 이행해야 한다.

사용주는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진다. 정책은 노조를 통해 노동자들과 함께 개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OSH 관리 시스템의 필수요소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공동 작업장

OSH 위원회를 통해 위험 평가를 포함한 OSH의 모든 측면에 대해 상담과 정보 제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수 노동은 24시간 내내 어렵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질병과 바이러스, 정신건강 문제, 부상 및 사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직종 중 하나이다. **기후 위기는 이러한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온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위험, 기상이변 빈도 증가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여객 및 화물 운송은 직원이 충분히 휴식하고 훈련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안전하다. 여기에는 안전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OSH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는 것이 포함된다.

OSH 관리 시스템은 교대 근무 및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무시간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자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청년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청년들은 직장 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직장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성 운수노동자들은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예를 들어, 개인 보호 장비(PPE)와 같은 보호 조치에 있어서 간과당하는 경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소위 성 중립적인 접근법(사실상 남성 중심적인)은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없앨 수 있다. 한 가지 사이즈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낙인 없이 여성 건강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품위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폭력과 괴롭힘은 운수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현실이며,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운수노동자를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ILO 협약 190호는 노동조합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해 일하며 더 많은 여성 운수노동자의 채용과 유지를 지원하는 운송 부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정부는 협약을 비준해야 하며, 사용인은 협약의 조항이 운수노동자들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사용인은 운수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OSH 문제를 식별, 점검 및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인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노동의 미래 구축하기

기술은 전 세계로 재화를 운송하고 사람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적절한 환경에서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동조합과 교육, 숙련화, 신기술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참여하면, 새로운 기술은 탈탄소화와 같은 중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시행, 노동자의 참여와 협의 확대는 물론, 신중한 적용과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기술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감시의 도구가 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와 노조 및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차별할 수 있다. 기술이 노동자의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고용과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조건을 거부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운수노동자들에게 있어, 코로나19는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데이터와 기술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켰다 **기존의 불평등 심화**. 여성 운수노동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은 종종 이해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를 배제하고** 도입된다.

노조는 새로운 기술이 차별과 배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운수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 운수노동자들과 모든 연령대의 잠재적 여성 운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은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다. 우리는 청년 노동자들이 디지털 추세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령 노동자, 소수 민족 노동자** 등 다른 노동자 그룹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청년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기 위한 전용 자금을 제공하여 영향 받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화 및 집결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거대 초국적 디지털 플랫폼은 막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교통, 경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부, 권력을 확대했으며**, 종종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감시와 자동화, 소위 '유연한 근무'를 장려했다. 전자상거래는 업종, 국가, 직장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생산성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현지 운수 플랫폼의 착취적 관행은 전 세계 운수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에서의 공정성과 안전에 대한 이러한 도전에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모든 플랫폼 기업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모니터링과 감시를 오용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운수노동자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감시, 모니터링, 통제**, 압력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운송 회사 중 35%** 이상이 직원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절반이 직원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다. 청년 노동자들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관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니터링, 감시, 평가 및 벤치마킹 시스템에 많이 노출될 것이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다. 배제와 불평등한 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조직적인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은 기존의 차별을 영속화하고 심화시킨다. 여성 운수노동자들에게 있어, 직장 내 조직적 배제와 불평등한 임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편견은 더 많은 차별과 배제, 더 적은 기회와 더 낮은 임금을 의미한다.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장 기술에 대한 주요 경험은 감시와 통제일 것이다. 명확한 제한사항이 있어야 한다: 알림 및 추적 시스템을 행동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오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피고용인 데이터 보호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거대 전자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전송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업계 전반에서

청년 노동자들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관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니터링, 감시, 평가 및 벤치마킹 시스템에 많이 노출될 것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운수 분야의 모든 인공지능(AI)의 도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를 요구한다.

노조는 직장의 기술 변화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데이터 생산에 있어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노동자의 참여 및 효과적인 관여는 안전을 보장하고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기술의 직장 내 도입으로 인한 혜택과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는 정부 및 책임 있는 사용인과 함께 운수와 노동의 미래, 공급망에 관한 규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변혁과 디지털화의 목표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혁과 디지털화 단체협약 및 법적 규정은 변혁을 관리하고 노동자의 관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관은 초기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포함되어야 한다. 각각의 직원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은 사용주의 몫이다. 활동의 세분화로 직무 프로필의 평가 절하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득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인터넷 접속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운수노동자, 특히 장기간 집을 떠나 사회적 연결성을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책임

수십 년에 걸친 규제 완화와 아웃소싱, 하청, 과소 투자, 노동자 착취는 운송 공급망 내 바닥치기 경쟁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해 이 모델이 드러났다. 공급망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수십만 명의 선원들이 계약이 만료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선박에 갇혀 일하느라 스트레스와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다른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이윤 추구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에너지와 식량 공급을 제한하며 기회주의적 금융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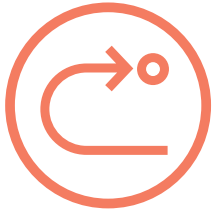
일부 부문에서는 공급망 최상위층에 있는 소수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이익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낮은 가격으로 운송 계약을 입찰함에 따라 수많은 운송업체들과 최하위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임금과 안전, 인권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아웃소싱은 단체교섭 구조, 사용자 정책, 평등 조치 및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송 업체 외에도 투자자, 운송 고객, 정부 및 규제 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및 공급망 전반의 노동기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접 고용과 하청, 비공식 고용 등 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양질의 일자리, 기본적인 인권 및 노동권, 진정한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자주 사용되는 위장 고용과 싸워야 한다.

일자리 감소, 불안정한 일자리, 불안정성,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현재의 추세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고용 정책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기업과 정부, 규제 당국이 세우는 계획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업 간 계약 시,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성적 괴롭힘 정책과 승진 및 교육 기회와 같은 성평등 조치를 포함하는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창고에서부터 도로와 철도, 항구와 공항, 해양과 상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공급망을 따라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우리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우리는 이 힘을 활용하여 공급망에 필요한 변화를 주도하고, 노동자에게 권력과 민주적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얻었다.



운수를 지속 가능하게 함

환경 정의 없이는 경제, 산업, 정치 정의도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보다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향한 노동자 중심의 회복을 의미한다. 운송은 전 세계 에너지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우리의 힘은 운송 계획과 기후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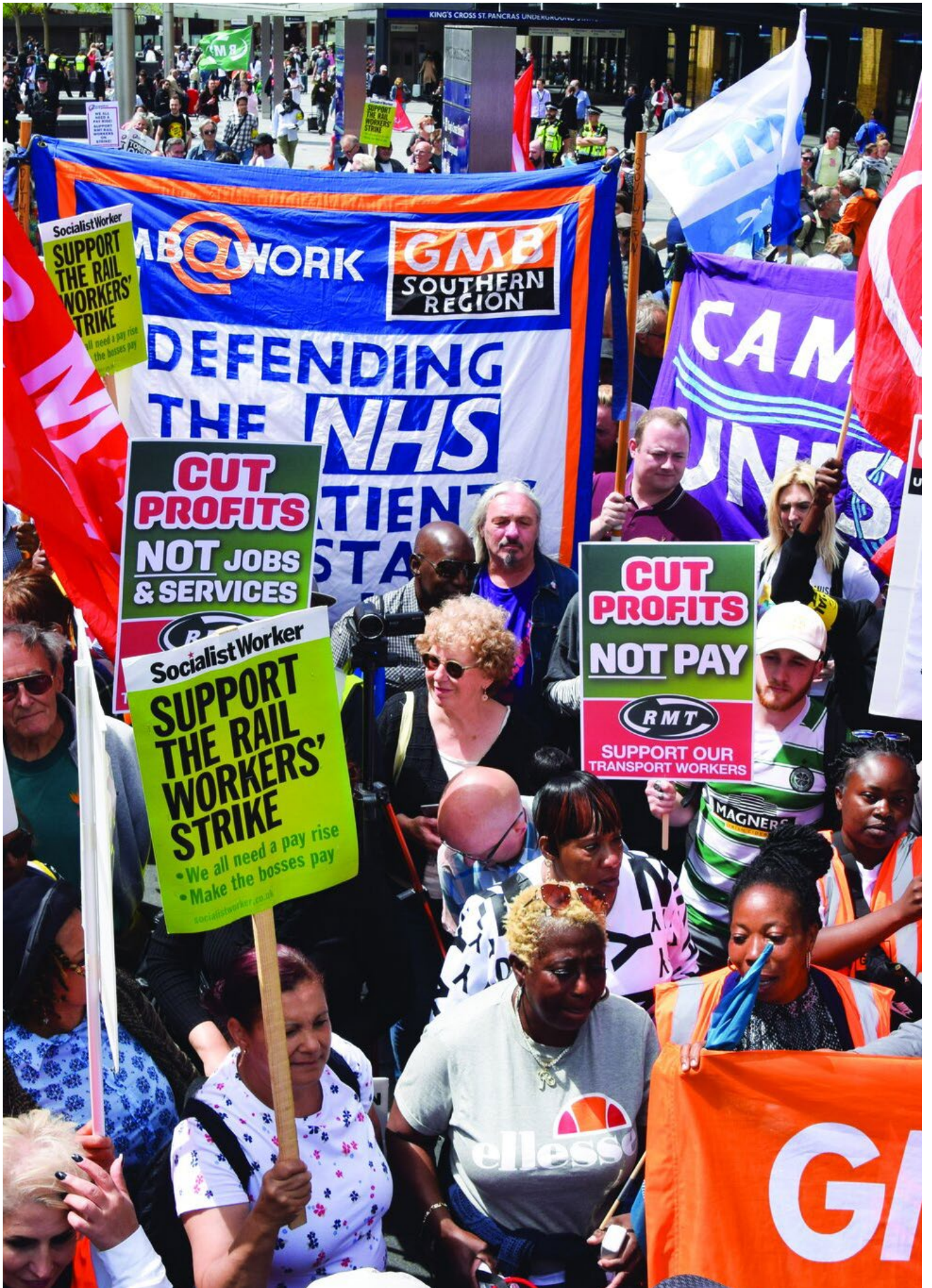
전 세계 정부와 사용인들은 사회 및 자연 환경과 양립할 수 있는 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지속 가능한 탄소 제로 미래로의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와 민주주의, 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으로의 교통수단 전환(modal shift)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대체 연료, 탄소 제로 에너지원의 빠른 확대가 시급하다.

운수노동자들은 폭염과 폭풍부터 홍수와 난기류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는 교통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와 계획은 이러한 피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과 같은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없다면,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공정한 전환은 이러한 모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수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운수노동자들을 기후 해결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모든 운송 부문에서 투자 및 공정한 전환 계획이 뒷받침된 산업별, 부문별, 국가별, 지역별 및 국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공공이 소유하며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는 운수가 필요하다.

노동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공정한 전환은 노동조합의 권리, 양질의 일자리, 공식화된 일자리, 기후 행동과 관련된 모든 주요 의사결정 과정 내 노동자의 적극적인 발언권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노동자를 교육하고 장비를 구비하여,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청년 노동자들은 저탄소 운송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는 운수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전환을 주도할 새로운 세대의 청년 기후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서비스 모두에서 성평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성별 구분 데이터를 사용한 노동 영향 평가와 성별 대응 계획 등, 운송 관련 의사결정에 여성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대표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4부:

변화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비전과 전략 전달: ITF 사무국

ITF의 운영은 가맹조직과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유지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ITF 사무국의 운영 기능은 현재와 미래의 가맹조직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와 개혁 과정을 거쳤다.

검토 결과에 따라, 활동에 대한 총 지출 비율을 높이는 등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무국 비용을 포함한 운영 지출은 가맹조직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ITF의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ITF 지역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된다.

ITF의 산업 부문과 부서는 모든 운송 수단과 여성 운수노동자 및 청년 운수노동자를 위해 이 비전과 전략을 안내하고 실행한다. ITF 지역은 지역 쟁점과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동을 조정하며, 국가와 지역, 국제 우선순위에 관하여 매일 가맹조직들을 지원하고, 국제 및 국가 활동에 연계하기 위한 연락망을 제공한다.

ITF 캠페인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연구팀, 법무팀, 인사팀, 재무팀, 행정팀, 시스템팀, 언어서비스팀은 각 분과와 지역, 부서와 협력하여 총회 비전과 전략을 전달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가맹조직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맹조직의 자체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ITF의 3가지 전략적 역할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
멤버십 성장 및 활성화 - 가맹조직의 멤버십 및 ITF 멤버십 확대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조직 및 ITF 선언 멤버십 증가율 여성 및 청년 노동자 멤버십 증가율
혁신적인 캠페인 - 다국적 기업과 정부, 투자자, 그 외 주체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및 가맹조직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 기업과 합의한 ITF 정책 건수 가맹조직 단체 교섭 기회 건수
글로벌 및 지역 정책에 영향력 행사 - 가맹조직이 지역, 국가 및 현지 표준을 개선할 권한을 갖도록 모든 운수노동자를 위한 국제 표준을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한 국제 표준의 개수 정부가 비준한 국제 표준의 개수

멤버십 성장 및 활성화

목표: ITF 선언 멤버십 수,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운수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다. 우선 멤버십을 늘려서 그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다음 총회까지 기존 가맹조직과 신규 가맹조직들의 선언 멤버십 증가를 포함해, 운수노동자 조합원을, 2024년 멤버십 수 대비 14% 많은,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멤버십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여객 수요가 79% 증가하고 화물 수요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수 부문의 성장 예측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수적이다.

가맹조직들은 노동자들과 ITF 지원을 조직한다. ITF는 가맹조직의 조직화와 교육, 지역사회 관여, 서비스 제공, 멤버십 증대를 위한 기타 활동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전략적 연구 등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각 ITF 분과와, 지역, 부서별로 14%의 멤버십 성장 목표에 동의하고 보고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여성 운수노동자 및 청년 운수노동자 멤버십이 눈에 띄게 증가하도록 만든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히 청년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선별된 조직화 프로젝트와 노동조합 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노조 구축

ITF의 노조구축(Union Building)팀은 이 업무를 지원하고 노동조합연대지원조직(TUSSOs)과의 협력을 주도할 것이다. TUSSOs의 소중한 기여와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노동조합 멤버십과 구조가 강화되었다. 양자 간 프로젝트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TUSSOs와의 공고한 관계는 멤버십 전략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관계를 넓히고 개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국에서 TUSSOs와 함께 활동하는 ITF 가맹조직들은 이 강력한 삼각관계의 세 번째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운수노동자들의 힘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해나갈 것이다.

**공급망의 파편화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최상층 계급의 독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진: REUTERS

멤버십 활성화

적극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멤버십은 강력한 ITF의 토대이다. 우리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 여성과 청년 노동자를 두고, 교육과 훈련, 글로벌 행동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모든 운수노동자의 행동주의를 동원하고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운수노동자들과 보조직 및 관리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기술과 그 외 운수업 구조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변하는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주의가 가맹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캠페인하고 로비하는 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조정위원회(NCCs)도 멤버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글로벌 활동가 커뮤니티는 우리의 행동주의와 캠페인의 원동력이다. 가맹조직들이 운영하는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운수노동자 및 운송 관련 쟁점을 지원하는 노조와 대중으로 구성된 온라인 활동가 커뮤니티가 동원될 수 있다.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법률을 위해 기업들을 상대로 싸우고 정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차기 총회까지, 이 커뮤니티를 15만 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혁신적 캠페인

목표: 산업 부문 및 부서 전반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가맹조직의 조직화 기회, 영향력 및 단체교섭 범위를 확대함.

캠페인과 행동주의는 운수 노조가 하는 일의 핵심이다. 우리는 한 정부의 결정이 다른 지역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 사회 정의, 노동자의 권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부터 국내 및 국제법 개정까지, 변화를 위한 캠페인은 우리가 진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우리는 직장과 업계 문제를 공공 정책 해결책에 대한 요구와 연결하여 운수 노조의 산업적 및 정치적 힘을 지원한다. 운수노동자의 안전을 기후 변화 정책과

연계하면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도 운수노동자의 산업적 및 정치적 힘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국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 가지 글로벌 캠페인 하에 국가 및 지역 캠페인을 조정하고 연결하여 글로벌 캠페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01. 기후 정의, 노동자 정의 - 공정한 전환 계획을 통해 위험한 기후 변화와 고용 없는 운송 일자리를 방지함.
02. 기업의 탐욕 근절 - 글로벌 공급망을 정리하고 최상단에 있는 다국적 고객을 비롯한 기업들이 공급망의 모든 운송, 물류 및 창고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03. 민주주의와 권리 - 파업권 수호 캠페인을 포함한 노조의 권리를 위해.

글로벌 노조 운동

ITF는 세계노조협의회(CGU)를 통해, 그리고 다른 세계노조연맹(GUFs) 및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조직화에 협력하고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탐욕에 맞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 정치·경제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노조 운동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단결시키면 공급망과 운송 부문 전반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동맹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많은 조직들과 사회 운동 및 진보적인 운동은 ITF의 공통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와의 협력은 운수노동자들의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전 세계 운수노동자를 대표하는, 멤버십에 기반하고 가맹조직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ITF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MSI) 참여를 포함한 이러한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가맹 조직과 함께하는 캠페인

노동쟁의, 노조 조합원 체포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에 대비하여 ITF는 ITF 연대행동대응팀을 설립하였으며 가맹조직에 대한 연대 지원을 조정하고 제공한다. 분쟁 및 자연재해에 직면한 운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 지원 기금을 편성하고 모금을 위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조직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다국적 기업의 권력을 재분배하고 있다. 우리는 협약을 통해 가맹조직의 조직화, 캠페인, 노사 관계를 지원하고, 책임 있는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성장과 힘을 지원할 것이다. ITF의 각 산업 부문과 부서 위원회는 책임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공식 관계를 발전시켜 가맹조직을 위해 조직화 기회와 영향력, 단체 교섭 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참여를 거부하고 착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에 맞서 캠페인을 벌여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다국적 기업의 운수노동자를 위한 협상권을 보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다국적 고객을 대상으로 운수노동자의 여건을 개선하고 업계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음은 포함하여, 글로벌 캠페인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캠페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분과와 지역, 부서의 캠페인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업계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01. 글로벌 행동주의 커뮤니티 동원
02. 노동자 자본 전략의 사용을 확대 및 개선하고 가맹조직이 노동자자본위원회(Committee on Workers' Capital)를 지원하거나 이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책임 투자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홍보함
03. 선거를 포함한 국가 정치 과정에 가맹조직의 참여를 지원함
04. 다국적 기업의 운수노동자를 위한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지원함
05. 수준 높은 재무분석과 전략적 연구, 간행물, 보고서를 바탕으로 ITF가 운수노동자를 위한 세계 최고의 옹호단체로 인정받도록 함
06. ITF 글로벌 여론조사를 통해 전 세계 여론의 동향과 운수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모니터링함
07.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세트의 최첨단 활용 및 분석 방법을 개발함
08. 캠페인을 지원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도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함.

글로벌 및 지역 정책에 영향력 행사하기

목표: 모든 운송 부문에서 글로벌 규제 및 산업 표준을 강화함

다음은 통해, 정책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은 업계 표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 멤버십 및 캠페인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 기반 정책을 개발함
- 전 세계와 지역, 국가 차원의 산업 및 부문별 법률과 규제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조건을 보장함
- 사용인 그룹, 업계 포럼, 국제 무역 및 투자 기관에 영향을 미침.

운송업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의하는 쟁점 기반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조직화 및 캠페인의 기본이다. 안전 또는 지속가능성, 기술, 공급망, 공공 소유권, 투자, 위생권,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에서 여성의 제도적 배제, 청년 고용 등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 우리는 가맹조직들을 단결시키고 업계 주체들에게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가맹조직 및 조합원들과의 토론과 참여는 ITF의 모든 정책 입장 구축의 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직장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쟁점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도출함으로써 운수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을 대신하여 권한을 가진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력한 규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용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내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운수노동자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기업의 욕구가 지배하는 전 세계 경제에서, 유엔 규제체계와 규제 권한을 가진 지역별 정부간기구 및 국가 차원의 법률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ITF 가맹조직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수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와 규제 완화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투자와 소유가 가속화되고 있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수업에 **2040년까지 약 50조 미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미국의 '빌드 백 베타(Build Back Better, 더 낮게 재건하자)' 계획, 전 세계 운수업의 전력화는 국내외 운수 분야에 수조 달러의 공공 투자를 의미하며, 더불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ITF는 가맹조직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공공 투자가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투자와 국제 금융기관 및 정부의 조달 관련 규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캠페인하고, 로비하며, 조직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노조의 권리 존중 및 확대가 주는 혜택을 입증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며,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운수노동자를 위한 현지의 숙련된 고용을 보장하는 투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그룹과 업계 포럼, 국제 무역 및 투자기관들과 협력하여 운수업 및 운수노동자들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룹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는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운수노동자를 위한 표준의 개발과 효과적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장할 것이다.

해상 운송 분야에서, ITF는 전 세계 57개국 120 개 항구에 140명의 사찰단과 연락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편의치적선(FOC)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원들이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 생활 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찰단은 첫째로 FOC 선박이 ITF 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협약이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국제교섭포럼(IBF) 과 사찰단의 역할을 포함한 FOC 캠페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운수노동자의 권리와 조건을 보호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다른 운송 부문에서 표준 개발 및 효과적 시행 모델이 어떤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6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한 행동 촉구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수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01. 유엔 체계를 통한 국제기구 개발 및 이행
02. 국가 입법 및 정부 정책의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공유함
03. 가맹조직들에게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운수노동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전략을 수립함
04. 운수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제공함
05. 사용인과의 관계가 운수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용자 그룹과 협력함
06. 다른 운송 부문에서 효과적인 이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FOC 캠페인에서 교훈을 얻음
07.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개발하여 ITF 가맹조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지원함.

결론:

세상을 진전시키는 운수노동자

이번 총회의 비전은 세상을 움직이는 운수와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다. 우리는 멤버십, 캠페인 및 정책 전략을 통해 달성할 6가지 요구 사항으로 단결한다. 우리는 함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운송 부문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운수노동자들의 비전과 힘, 리더십은 운수업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모두를 위한 평등과 경제 정의 및 사회 정의의 원동력으로서 운수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가 미래다. 우리는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이다.

총회 결의안



A01: 운수노동자들의 권리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한반도 평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지지(제6 결의안), 팔레스타인의 운수 노동조합 지원(제7 결의안), 이란 트럭 운전자 파업에 대한 위협 반대(제11 결의안), 아르헨티나의 노조 자유 캠페인 지지(제12 결의안), 경쟁법을 통한 단체교섭 공격 반대(제13 결의안), 선원을 위한 글로벌 비자 정책 촉진(제16 결의안), 선원 권리 강화 및 근로 기준 개선(제17 결의안), 청년 선원 및 항만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제20 결의안),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는 내륙항해 선원을 위한 표준 개선(제22 결의안), 델타항공 및 델타항공의 공급망 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을 위한 캠페인 지원(제26 결의안) 등 2018년 제44차 ITF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약속을 언급함.

02. 약속한 곳을 언급함:

- a. 2022년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필리핀의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사기 혐의 소송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약속함(제1 긴급 발의안)
- b. 2022년 12월 수산분과 회의에서, 어업인권리네트워크(FRN)를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과 싸울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고 약속함.

- c. 2022년 12월 내륙항해분과 회의에서, 2023년 ILO 분과별 회의에서 국제 최저 표준에 대한 캠페인을 약속함(제22 결의안)
- d. 2023년 3월 도시운수분과 회의에서,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대를 조직하고 도시운수의 공공 소유와 투자를 요구하기로 약속함(제2 결의안)
- e. 2023년 3월 도로운수분과 회의에서, 장거리 여객운수 내 권리와 안전,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고(제2 결의안), 팔레스타인 도로운수 노동자들의 수송권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함(제5 결의안)
- f. 2023년 3월 철도분과 회의에서, 전 세계 철도 부문 직장에서 장애인 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애인과 연금 수급자, 통근자 단체와 협력하여 직원 감축 및 매표소 폐쇄에 맞서 싸우고, 기후 위기 상황에서 노동 기본권을 위한 파키스탄 철도 노동자들의 캠페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g. 2023년 9월 여성운수노동자 회의에서, 극우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평등과 여성 인권의 후퇴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함
- h. 2023년 12월 선원분과 회의에서, 멕시코시티 정책 검토의 정신을 수용하고 이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가맹조직에게 촉구함
- i. 2023년 12월 선원분과 회의에서, 가맹조직들이 페리 항로에 대한 ITF 아테네 정책의 시행을 지지하고, 단거리 해상 운송 항로에 관한 협약 및 국내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함(제9 결의안)

- j. 2023년 12월, 공정관행위원회(FPC)는 국제선원노조(ISU)와 협력하거나 협약을 맺은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91조의 강화와 UNCLOS 제94조에 따른 정품 링크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의 촉진을 포함하여, FOC 캠페인을 지지하며, 선박 등록 관행과 선박 등록 조건에 관한 유엔 협약(1986)(FOC 캠페인 75주년 기념 결의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
- 03.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권리가 인권임을 인식함. 운수 노동자들,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이러한 권리를 국제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하며 확대하는 것은 128년 동안 전 세계에서 ITF의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 04.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포함한 전 세계 노동권에 대한 공격이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분열과 노동자 간 경쟁, 극우 세력의 부상을 촉진한다고 언급했고,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이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언급함.
- 05. 모든 운수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세계노동조합협의회\(CGU\)](#)이 기울인 노력과 노동권 옹호 및 확대를 위해 전 세계 노동운동의 투쟁과 희생을 언급함.
- 06. 많은 국가와 부문, 공급망에서 파업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과, ILO에서 파업권에 대한 사용인의 공격이 있었다는 점,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전 세계 노동운동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07.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하여 여러 국가에서 의무적 공급망 인권실사법 등 기업 책임 관련 법안이 채택된 것을 언급함.
- 08. 노동 쟁의, 노조원 체포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ITF는 가맹조직에 대한 연대 지원을 조정하고 제공하기 위해 ITF 연대 행동 대응을 설립했음을 언급함. ITF는 분쟁과 자연재해에 처한 운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 지원 기금을 제공하고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벌여 기금을 마련했다.
- 09. 공공 서비스와 노동사찰시스템, 모두를 위한 사회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정한 과세의 역할을 언급함.
- 10. 각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파업권을 포함한 단결권 등 직장 내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고용주, 투자자, 다국적 고객 및 모든 행위자가 [ILO 협약 87호와 ILO 협약 98호](#), 그 외 노동조합 권리를 다루는 관련 ILO 문헌를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존중할 것을 촉구함.
- 11.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공급망 운수 분야의 이주 노동자 및 비표준고용형태(NSFE)를 위한 멤버십 및 조직화 전략을 수립함
 - b. 운수 노조와 운수노동자, 동맹단체, 지지자들이 취하는 전 세계 연대 행동을 편성함
 - c. 민주주의와 권리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과, 파업권 수호 캠페인을 포함한 노조 권리를 위한 ITF 글로벌 연대 행동 캠페인을 편성함

- d. 가맹조직들의 전략적 소송과 법률 개혁 노력을 지원함
- e. 유엔(UN) 전문기구들 간의 더 많은 협력을 지원하고, 특히 ILO에게 자매기관들과 보다 긴밀히 연계하도록 요청함.
- f. 다음을 포함하여, 유엔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 수단을 개발, 실행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함:
 - i. 전 세계 공급망과 플랫폼 업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문헌을 작성함
 - ii.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조약;
 - iii. C190을 포함한 기존 ILO 표준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표준
 - iv.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v.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포함한 부문 차원
 - vi. 유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 g. ILO의 감독 시스템과 유엔 조약기구, 국제금융기구(IFI) 보호장치, 무역 메커니즘, 지역 인권 메커니즘, 비규범적 기업 및 인권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가맹조직을 지원함.



A02: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상황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정기총회:

0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의 오랜 역사와 2023년 10월 7일 이후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지역 내 평화 증진 및 노동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함,
02.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과 동시에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억류된 모든 인질과 그 외 사람들의 즉각적인 귀환, 유엔의 보장 및 감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진정한 노력에 대한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의 촉구를 고려함,
03. 더 이상의 인도주의적 재앙과 민간인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달을 확대하고 기존의 인도주의 통로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인도주의 통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함,
04. 2024년 1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 사건에 대해 취한 임시 조치가 암시하는 바를 언급함,
05. 유엔 총회가 2024년 9월 18일 이스라엘 국가에, 그 중에서도 특히,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결과에 관한 2024년 7월 19일자 ICJ 자문의견을 온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언급함,
06. 팔레스타인 국가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의 지속적인 조사를 언급함,
07. 분쟁이 국경을 넘는 운수노동자를 포함한 운수노동자들에게 미친 악영향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주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함,
08. 운수 노동자로서 ITF는 평화와 정의, 균등한 기회,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주권의 원칙을 우리의 규약과 정책에 담아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함,
09.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 및 자유의 수호를 옹호하고,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침략, 그리고 성별, 국적, 인종 또는 피부색, 연령, 성적지향, 장애 또는 신념에 따른 차별에 대한 반대를 옹호하도록 촉구하는 ITF 규약을 상기함,
10. 이러한 폭력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과 어린이, 여성, 고령자와 연대하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함,
11. ITF에게 다음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 a. 더 이상의 인도주의적 재앙과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 b. 근무 중 홍해에서 납치된 선원들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억류된 모든 인질과 그 외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함

- c.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 수백만 명의 필요를 충족하는 필수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달을 확대하고 기존 인도주의 통로를 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도주의 통로를 구축함.
 - d. 국제사회, 업계, 노조와 협력하여 분쟁으로 인한 운수노동자의 위험을 줄임.
 - e.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 특히 인권 및 인도법을 모든 당사자가 존중함.
 - f.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엔의 기구 활성화.
 - g. 국제법 명령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국제법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들의 조치.
 - h.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2호와 338호에 따라 폭력과 불법 정착촌, 점령을 종식하고 양국 해결안을 통해 협상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도록 모든 정부가 정치적 약속과 지원을 제공함.
 - i.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 조직화 노력 강화.
12. 총회는 ITF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j. 각국 정부에 근동에서의 유엔 난민구제사업국(UNRWA)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사업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히 재개 및 강화할 것을 촉구함.
 - k. 국제인도법 위반과 인권 침해 및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기, 군수품 및 기타 군사 장비의 판매, 이전, 전용을 중단하도록 각국 정부를 독려하고 압력을 가함.
 - l. ITF의 팔레스타인조합연대기금(Palestine Union Solidarity Fund)에 대한 기부를 계속 장려하고 기금의 일부를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을 고려함.
 - m. 파괴된 기반시설의 재건 또는 복구를 포함하여 가자지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건과 복구를 위한 캠페인 진행, 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2017년 채택된 ‘평화와 회복력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권고 205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하여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재개발함으로써 가자지구의 양질의 고용을 활성화함.
 - n. 팔레스타인 국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 o. 이 결의안 이행을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가맹조직들을 독려함.
13. 또한 총회는 2023년 7월 11일자 글로벌 노조 성명서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유엔이 평화유지군 투입 등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것을 요구함.
 -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의 확장과 유지에 관여하는 기업과 사용자,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추구할 것을 글로벌 노동조합 운동에 촉구함.
-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내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여성, 고령자, 모든 민간인, 노동자는 물론 이 분쟁의 영향을 받는 모든 가맹조직 구성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A03: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의 위기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M23을 비롯한 무장 단체의 지속적인 공격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외국 군대 주둔으로 인해 250만 명의 난민과 수천 명의 사망자, 소녀와 여성에 대한 야만적인 강간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그레이크호(Great Lakes)' 지역의 모든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함;
02. 주변 국가와 다국적 기업의 무장 단체가 콩고의 광물과 천연자원을 대규모로 약탈하는 것을 개탄함;
03. 특히 중앙아프리카의 전략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노동자들, 특히 운수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주민과 재화 이동의 어려움을 비통하게 언급함; 10월 3일 고마(Goma)에서 125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보트 침몰 사건은 이를 보여주는 슬픈 사례입니다;
04. 콩고에 있는 ITF 가맹조직들의 긴급 경보, 지난 아프리카 지역 회의에서 채택된 아비장 (Abidjan) 선언문, 그리고 ITF 가맹조직인 영국 RMT가 ITF 사무총장에게 이 위기에 대해 언급한 것을 회부함;

05.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콩고민주공화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과 외국 군대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함;
- b.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관이 무장 단체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재화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를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옹호함;
- c. 민간인, 특히 운수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보호를 옹호함;
- d. 국제사회가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난민과 취약 계층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함;
- e. 아프리카,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운수노동자의 권리, 평화, 정의를 위한 옹호 및 로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ITF 사무총장과 가맹조직들에게 약속함.



A04: 예멘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a. 2024년 6월, 예멘항공 항공기 4대가 사나 (Sana) 국제공항에서 사나 정부에 의해 억류되었다.
- b. 지난 몇 주 동안, 예멘은 이 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폭격을 당하기도 했다.
- c. 이는 운수노동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고통을 가져온, 수년간의 분쟁과 전쟁 중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0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국제사회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예멘의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부당한 전쟁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
- b. 전쟁과 분쟁의 재앙으로부터 예멘의 운수 부문을 중립화하고 모든 육-해-공항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방하도록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 절차를 지속할 것.
- c. 사나 정부에 예멘항공이 예멘 공화국의 모든 공항에서 운항하는 유일한 국영 항공사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사나 국제공항에서 예멘항공 비행기를 풀어주고 사나 은행에 예멘항공의 금융거래를 풀어줄 것을 촉구할 것.



A05: 사헬 국가들의 위기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말리공화국과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 등) 사헬 국가들에서 무장 테러 단체가 저지른 수많은 학살 - 그 중 가장 최근에는 8월 24일 부르키나 파소 중북부의 바르살로그호(Barsalogho)에서 4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을 암살한 사건이 발생했음 - 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함;
02. 특히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 등 사헬 지역에 만연한 대규모의 불안과, 그로 인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크게 우려함;
03. 또한 무장 단체와 분리주의, 범죄 운동, 모든 종류의 밀수업자 및 인신매매범들의 존재와 증식으로 인해 이 위기가 다른 모든 서아프리카 국가로 확산될 심각한 위험에 대해 우려함;
04. 사헬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의 인신매매, 마약 및 물품 밀매와 같은 활동의 심각한 결과와 모든 서아프리카 국가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대한 위협을 인식함;
05. 불안정성과의 싸움이 우선시되면서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위축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함;
06. 목숨 걸고 주민들에게 보급품을 공급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수노동자들이 당한 공격에 크게 낙담함;
07. 거의 반세기 전에 시작된 모든 통합 노력이 소멸되고 하위 지역 기관(서아프리카제국 제공동체(ECOWAS)와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WAEMU))들이 붕괴될 위험을 측정함;
08. 부르키나 파소와 말리, 니제르의 ITF 가맹조직들의 추천과 지난 아프리카 지역 회의에서 채택된 아비장 선언을 준수함;
09.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사헬 국가, 특히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의 국민과 운수노동자에 대한 모든 지원과 연대를 표명함;
 - b. 범죄, 분리주의, 테러 단체가 저지른 야만적이고 비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함;
 - c.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 정부에 일상 업무 수행 시 운수노동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도록 로비함;
 - d. 노동자들과 범죄, 분리주의, 테러 단체와의 싸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국제 사회와 지역, 하위 지역 기관에 로비함.



A06: 모든 인간의 평화와 보안에 대한 권리는 각국 정부와 정부간 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우리의 관찰 의견:

01.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모두의 자유로운 협동에 기반한 인간관계의 원칙이다. 평화의 지속은 모든 인권과 의무의 행사에 대한 전제 조건이다. 출신과 상관없이,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궁핍한 상황의 첫 희생자는 항상 노동자이다.
02. 빈곤과 절망, 실직, 고충이 분쟁을 부추긴다. 이를 근절하는 것이 평화의 조건 중 하나이다.

우리의 가치:

03.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특정한 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정의는 평화 추구 및 유지의 구성요소이다.
04.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호전적인 논리에도 반대하며, 평화의 지속 가능한 유지에 초점을 맞춰 노력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분쟁 예방에는 평화 문화에 대한 참여와 비폭력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구조가 필요하다.

05.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영토 점령을 규탄한다. 영토의 군사적 점령은 최악의 폭력이다. 이러한 불의는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다.
06.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형태의 폭력과 민간인에 대한 연좌제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ITF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세상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군비 축소, 특히 핵무기 폐기를 옹호한다.
07. 또한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는 시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대체하고 분쟁 해결에서 대화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국제법의 중요성과 분쟁 예방에서 국제연합(UN)의 필수적인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08.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위반 또는 침략 행위가 있는 경우, UN 헌장 제7장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적 행동이 일방적 개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려사항:

09.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분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계속 불행에 빠지고 민족 간의 증오와 광신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중인 국가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0. 국가는 더 이상 무기와 탄약을 다른 상품과 같은 상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무기와 탄약의 이전과 상업화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의 부재는 지구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수많은 분쟁을 조장하는 주요 불안정 요인이다.
11. 문서와 조약 및 협약은 많이 있다. 이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국제 관할권이 존중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2. 우리는 ITF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UN 헌장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집행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상임이사국의 실질적 거부권 폐지를 포함한 UN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캠페인.
 - 군비축소 과정과, 대화와 평화 문화 증진에 대한 여론을 동원하고 캠페인과 행동을 통합함.
13. 대화와 토론을 통해 평화 추구 세력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서 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 진영을 강화하고 다른 노동자 조직뿐 아니라 더 넓은 시민사회와의 화해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다.
14.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 사항에 기반하고 이의 성공에 기여하면서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가능한 한 일원화된 행동의 개발을 촉구한다.
 - a.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
 - b. 9월 26일 UN 세계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
 - c. 10월 2일 세계 비폭력의 날
 - d. 11월 10일 UN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A07: 극우 무관용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연대의 삶을 산다.
02. 우리는 모든 형태의 혐오와 배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전 세계 곳곳의 급진 우파와 우파 포퓰리즘 정당 및 운동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03. 다양한 우파 포퓰리즘 및 급진 우파 단체의 가치와 목적은 우리 노동조합의 가치와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
04. 파시즘은 멀리 있던 적이 전혀 없었지만, 오랫동안 민주주의 사회의 변방으로 추방되는 경향이 있었다. 파시즘은 - 지당하게도 - 소외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극우 담론에 의해 가중된 국제적인 지향성을 띠고 있다. 주류 미디어에서 극우 및 급진 우파의 지도자들에게 광범위한 토론의 장이 제공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점점 더 극우적인 생각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 - 극우 정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 는 극우 세력의 영향을 받은 조치(반발, 벽이나 울타리 설치 등)를 취하고 있다. 극우 세력이 활동을 재개하며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05. 오늘날 극우 및 우파 포퓰리즘 단체는 기존 언론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 토론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더욱 오만하고 공격적으로 변하여, 끊임없이 선동적인 발언을 조직하고 혐오와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의 복지 국가와 그 민주적 기능이 공격 받고 있다.
06. 동시에 노조는 종종 반노조적이고 노동조합의 의미와 반대되는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되거나 문자 그대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들이 전파하는 사회적 모델은 개인주의와 배타주의, '자기 사람 우선주의'이다.
07. ITF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법치국가의 원칙에 전념하며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이며 극단주의적인 열망에 반대한다. ITF 노동조합은 결속력과 다양성, 존중, 감사를 표방한다.
08. ITF는 혐오와 배제에 반대하고 전 세계의 민주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시민사회와 민주적 이니셔티브, 인권단체와 긴밀히 연대한다.
09. 노조는 사선에 서서 우익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우파 포퓰리즘과 극우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ITF와 모든 구성원들은 극우와의 싸움을 주도해야 한다.

10. 따라서 총회는 ITF와 가맹조직들에게 다음을 통해 극우에 맞선 강력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 우파 포퓰리즘, 우익 극단주의 또는 파시즘의 표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명함.
- 노동조합으로서 극우 세력에 맞선 투쟁을 지휘하고 다양한 형태의 우익 극단주의를 식별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투쟁을 조율하기 위해 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함. 극우파에 맞선 투쟁의 모범사례에 대한 가맹조직 간 교류를 장려함.
- 노동조합 지지층에게 파시즘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들을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데 동참하도록 온라인 전략을 포함한 교육 도구를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을 의뢰함. 가맹조직의 청년 교류를 강화하여 국제적 결속력을 확인함. 그 중심에는 극우 세력이 사람들을 오도하고 대중을 결집시켜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선동의 가면을 벗기고 폭로하는 방법이 있다.
- 적대화, 배제, 가짜 뉴스에 기반한 극우 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희망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적 내러티브를 지지하고 개발함.



A08: 에스와티니(ESWATINI)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2024년 10월 13-19일 모코로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46차 ITF 총회는 에스와티니를 포함하여 전 세계 1,850만명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2천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함.
02. 총회는 에스와티니의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가 국가 폭력과 초법적 살인이라는 우려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ITF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1개월 전에, 저명한 노동조합 권리 변호사였던 툴라니 루돌프 마세코(Thulani Rudolf Maseko)가 자택에서 살해당했고 정부군이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악무도한 이 살해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인 조사와 선동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 당국이 귀기울이지 않은 요청.
03. 반면 인권과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에스와티니 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지난 2년여 동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글로벌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에서 노동자 권리 존중 측면에서 최악의 10대 국가로 계속 남아있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에는 민주화 시위로 최소 40명의 시위대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수백 명이 투옥되었다. 이 과정에서 에스와티니 정권은 민주주의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명의 의원을 투옥시키고 유죄를 선고해 총 6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한 명의 의원은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04. 노동권과 사회 정의, 국가 민주화 개선을 위한 운수노동자들의 진보적인 일련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인식함.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망명 중인 스와질란드 운수통신노동조합연합(SWATCAWU) 사무총장, 스틱스 은캄불레(Sticks Nkambule)의 목숨을 노리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으나 실패했다. 그 결과, 최근 열린 제112차 ILO 회의는 에스와티니 정부에게 스틱스 은캄불레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등 인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에스와티니 정부가 ILO에 제출한 2024년 9월 보고서에는 해당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거부 의사가 담겨 있다.
05. 스와질란드에서는 시위와 정당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함. 정치적 행동주의의 억압은 모든 사법, 행정, 입법 국가 권력을 군주에게 집중시킨, 1973년 4월 12일 국왕의 포고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06. 에스와티니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에스와티니 정부에 대항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는 에스와티니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거나 삭감하고 일부 고위 정부 관리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시행하려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07. 따라서 이제 제46차 ITF 총회는 만장일치로 다음을 결의했다:

- a. 1973년부터 현재까지 실정 51년의 독재정권 아래서 억압받는 에스와티니 노동계급을 위해 활동하는 ITF 가맹조직, SWATCAWU 에 대해 ITF가 변함없는 연대를 유지할 것임.
- b. ITF는 유엔 1948 협약의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라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SWATCAWU에 대한 모든 기술 및 회복력 지원을 제공할 것.
- c. 총회는 에스와티니 정부가 법률 업무에 87호 협약을 적용한 것에 관한 ILO 2024년 적용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에스와티니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정부와 국제 사회에 로비할 것을 ITF 가맹조직들에 촉구함.
- d. ITF는 SWATCAWU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도부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추방된 스틱스 은캄블레 사무총장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
- e. 국제노동조합연맹(GUF)과 함께 ITF는 억압받는 에스와티니 노동자들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억압적인 정권을 고립시키고,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고위 정부 관리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 f. ITF는 억압받는 에스와티니 국민들이 실질적인 인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연대를 제공할 것.



A09: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스포츠 및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함.
02. 물류 및 운영, 관광, 경기장을 오가는 팬들의 이동, 참가자 및 팬들의 안전과 건강 등 국제 스포츠 행사의 기획과 진행에 있어 운수노동자들이 맡은 중대한 역할을 인정함.
03. 노동자를 포함한 스포츠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세계노동조합협의회(CGU), 스포츠 및 권리연합(SRA)의 업무를 언급함.
04. ITF가 2024 - 2029년 총회 비전에 '운수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한 것을 언급함.
05.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ILO 협약 190호의 중요성과, 여성운수노동자, 청년운수노동자, 성소수자(LGBT)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국제 행사 기간 동안 직면하는 폭력과 괴롭힘의 위협 증가, 대중교통과 항공 여행, 관광, 화물 이동 및 관련 물류의 사용 증가를 인식함.
06. 특히 낯설고 외진 곳, 고도로 이동이 잦은 작업장에서 높은 압박감 속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제 행사에서 운수노동자의 위생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함.
07. 특히 국제 행사 전과 행사 기간 동안 운송 부문에서 노동자와 승객 모두의 인신매매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함. 이는 다음을 포함한 많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채용 장소로서의 운수 - 인신매매범들은 취약 계층과 청년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기 위해 교통 중심지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 b. 인신매매 수단으로서의 운수 - 인신매매범들은 규제가 완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운수 네트워크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 c. 피해자로서의 운수노동자 - 이동성이 좋고 규제가 완화된 운수업(예: 해운, 트럭 운송)은 점점 더 인신매매 노동자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다.
 - d. 신호로서의 노동권 침해 - 노동조합이 다루는 노동권 침해는 종종 잠재적인 인신매매와 인권 침해의 신호이다.
 - e. 교통 중심지와 거점, 공급망에서 여성 및 청년 노동자와 승객이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08. 2022년 카타르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운수 및 그 외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 침해를 언급함.
09. 2026 FIFA 월드컵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렇게 북미 3개국의 16개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언급함. 3개국의 공동 응찰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은 14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이중 FIFA의 수익은 110억 달러일 것이라고 한다.

10. 2030 FIFA 월드컵은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이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임을 언급함.
11. 2026 FIFA 월드컵 개최로 북미 전역에서 약 4만 개의 일자리와 10억 달러의 노동자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등 단기적으로 약 5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이 창출될 수 있다고 언급함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2018).
12. FIFA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함.
13. 공급망을 포함하여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의 기획과 운영, 제공 과정에서 FIFA와 정부, 사용자, 투자자, 다국적 고객, 그 외 주체들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함:
 - a.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적용 가능한 노사협약을 포함한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함;
 - b.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개최지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운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여 FIFA가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할 수 있도록 도움;
 - c. ITF 공급망 원칙을 존중하고, 하청 노동 및 비표준 고용 형태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운수노동자가 동등한 기준에 접근하도록 보장함;
 - d. 폭력 및 괴롭힘, 안전한 출퇴근, ITF 위생현장 준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직장 보건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노동조합에 자원을 제공함;
 - e. ITF 및 그 가맹조직과 협력하여 인권실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함;
 - f.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잠재적 '최초 대응자'로서 잘 훈련된 운수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원을 지원함.
14.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 존중 캠페인을 위해 ITUC와 CGU, 스포츠 및 권리연합과 협력하고 협조함;
 - b. 운수노동자 및 승객의 인신매매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지원함;
 - c.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ITF 국가조정위원회(NCC)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 및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중교통과 공항, 기타 교통 중심지에서 가맹조직 캠페인과 교섭을 지원함;
 - d.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의 가맹조직과 정기적인 소통 및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중교통과 공항, 기타 교통 중심지에서 가맹조직 캠페인과 교섭을 지원함.



A10: 중앙 및 동부 유럽에 걸쳐 운수노동자조합을 강화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2000년대 초부터 중앙 및 동부 유럽(CEE)의 노동조합에 영향을 끼친 멤버십 수 감소 때문에, ITF는 2019년 ITF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ETF와 함께 CEE에서 공동 조직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조직화 전략 및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 기존의 ITF/ETF 가맹조직들을 강화하는 구체적 성과를 보였고, 이들이 ITF와 ETF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 이 공동 행동 덕에, 항공과 선원, 항운, 내륙수로, 철도, 도로운수 부문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했다.
-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노동조합의 자금 조달 시스템 등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몇 가지 장벽과, 언어 장벽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의 연대와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ETF와 ITF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장벽을 확인했다.

- CEE 지역에는 노동자 참여 메커니즘이 강력하고 노조 밀도가 높은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많다.
- 2024년 6월 유럽연합 선거 이후, 유럽의회에서 우파가 다수당이 되어 운수노동자와 그 노동조합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노동 이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0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2019년 11월에 열린 ITF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표명되고 2022년 5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ETF 총회에서 재확인된, CEE 지역 내 노조 구축과 조직화, 단체교섭에 관한 ITF와 ETF 간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함.
- 재무 측면을 포함하여 CEE 지역 내 공동 조직화 프로젝트의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할 것을 ITF와 ETF 사무국에 위임함.
- 모든 ITF와 ETF 분과 및 위원회에게 CEE 지역 고유의 쟁점에 특히 주목할 것을 요청함.

- 신기술과 보건안전, 공정한 전환 문제에 대한 가맹조직의 단체교섭을 포함하여, CEE 지역 노조의 노동조합 결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이 조직화 노력은 그 외 ITF/ETF 활동, 특히 유럽업무협약회의의 업무, 기업 네트워크, 인권실사, 여성 및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 증진 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킴.
- 유럽 부문별 사회적 대화(European Sectoral Social Dialogue) 등, CEE 지역 가맹조직들을 동원하여 ITF와 ETF의 업무에 적극 참여시킴.



A11: 사회 보장 - 모든 운수노동자의 인권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사회 보호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명시한 지 76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보호 수준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인식함. 2020-2022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사회보호보고서에 따르면, 40억 명 이상이 여전히 사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02. 모든 국가는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지만, 사회보장의 필요성은 국경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점을 언급함. 특히 노령, 실업, 질병, 장애, 업무상 부상, 출산 또는 가장의 상실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보호 장치이다. 모든 노동자는 생애 다양한 단계에서 종종 경고 없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이상 영향을 받는다.
03. ILO에 따르면, HIV/AIDS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사회적 보호 격차가 악화되었으며, 기후 변화 또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성 증가가 가장 소외된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공정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 정책 및 기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사회적 보호가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04. 비공식 경제와 비표준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운수노동자들의 특정 사회적 보호 격차를 인식하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에 기반한 노동의 미래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호 체계의 현대화를 인식함.
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언급하고, 2012년 ILO 사회보장최저기준권고안(제202호)에서 강조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방식을 지지함. 이 권고안은 미래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앞으로의 다양한 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06. 빈곤 및 불평등과의 싸움에서 사회적 보호는 필수적이며, 사회적 포용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07.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위장 고용 및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공식, 비공식 또는 비표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운수노동자들과 모든 운수 부문의 가맹조직들이, 국가, 경제 및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고령자, 이주 노동자, 모든 성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본 소득 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최소 기준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요구하는 것을 지원함;

- 가능한 한 많은 운수노동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 빈곤과 취약성,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기본 사회보장인 - 사회보장 최저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 노동조합 캠페인에 참여함;
- 기준이 되는 1952년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제102호),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협약(제121호), 1967년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협약(제128호), 1969년 의료 및 질병급여에 관한 협약(제130호), 1988년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제168호), 2000년 모성보호협약(제183호) 및 이를 지원하는 권고안, 1982년 사회보장권리유지협약(제157호), 1949년 취업이주에 관한 협약(개정)(제97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1975년 이주노동자(보충 조항) 협약(제143호) 등 최신 ILO 사회보장협약의 비준과 정부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캠페인을 가맹조직들이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ILO와 그 외 유엔 기관 등 ITF가 운수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관련 국제기관들, 그리고 사용자와의 글로벌 관계 속에서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를 옹호함.
-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저소득 국가의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 국제금융기관(IFI)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이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금융기관들의 '기준'과 정부 차용자와의 대출 계약에 포괄적인 사회 보호 체계에 대한 요건을 통합시킴;
- 다른 글로벌노조연맹(GUFs)들과 협력하여 모든 노동자가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 및 캠페인을 강화함.
- 중저소득 국가의 사회 보호 체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최빈국의 사회보호 최저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기금 설립을 위해 국제적으로 옹호하고 협력함;
- ‘글로벌 행동의 날’을 조직하여, 사회보호 최저기준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호 체계의 안전망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운수노동자가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함.



A12: 우리의 집단 기억을 위해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ITF는 1896년에 설립되어 12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국제 노동조합주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해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격변을 겪었다. ITF의 역사에는 공통 기록보관소의 수집과 보존이 필요하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면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02. 1996년에 ITF 100주년을 기념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함. 일부 문서에는 간략한 역사적 기록이 주석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문가의 실질적 분석은 없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국제 상황에서 운수노동자의 역사와 특히 전 세계 또는 국가별 맥락에 따른 역사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미래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건에 비추어 과거의 결정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03. 워릭대학교에 이미 기록보관소를 두고 있고, 가맹조직들은 사회사 연구소, 기록보관소, 출판물 등을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함.

04. 우리는 ITF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주제별 파일 또는 주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 우리의 사회사를 분석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록보관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사' 부서를 만들기 위한 추가 재원을 고려함. 이를 위해서는 기록보관학자를 고용하고, 워릭대학교와 협력하며, 암스테르담의 국제 사회사 연구소 및 그 네트워크, IALHI: 국제노동사연구소협회(@IALHI)와 같은 협회 및 학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 전 세계 운수노동자 역사의 일부로서 출판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가 받는 방법을 탐색함.

05. 이 도전과제는 우리 조직의 공로가 될 것이다.



A13: 국경을 넘는 비공식 도로운수노동자들의 조직화 확대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전 세계적으로 도로운수노동자들은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속하며 건강보험, 사회보장, 산재보상 및 기타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별 기업과 공급망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다. 이는 매우 비조직적이고 비공식적인 도로운수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비롯한다.
02.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상당 시간 동안 일하는 이주민 및 국경을 넘는 운전자의 경우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함. 국경을 넘는 통로에서 운전자는 폭력과 괴롭힘, 갈취, 착취, 차별, 저임금 및 불규칙한 임금, 임금 미지급, 지속 불가능한 노동 및 생활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조합 대표성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03.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모여 집단적 힘을 구축하고 행사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강화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함.
04. ITF와 가맹조직들은 국경을 넘는 연대를 구축하고, 일부 지역의 국경을 넘는, 이주민, 비공식 도로운수 운전자들의 권리를 조직하고 보호하는 데 성과를 이뤘다고 언급함. 사례:
 - a. 2023년 1월 네팔 NETWON의 가맹조직인 네팔휘발유트럭운전자노조와 인도 비하르운수노동조합(TEU)은 사고, 입원, 경찰의 괴롭힘, 강탈, 주차 및 휴게 시설 이용 문제 발생 시 두 노조가 상대국 운전사를 지원하고 협력 및 이행 구조를 구축하기로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 b. 2023년 MOU 체결 이후 네팔과 인도 중부의 노조는 국경을 넘는 연대와 국경을 넘는 운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두 노조가 노력한 결과, 35명의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았고 136명 이상이 이 지역 ITF 가맹 노조에 가입했다.
05.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함.

06.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국경을 넘는, 이주민 및 비공식 도로운수 노동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글로벌 및 지역 회의를 개최하여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ITF에게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성공적 전략을 조언함.
- b. 국경을 넘는 이주민 및 비공식 도로운수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노조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역량강화를 제공함.
- c. 운수 부문 내 양질의 일자리 및 도로안전 증진에 관한 ILO 가이드라인과 안전운임제, 의무적 인권실사 제도를 바탕으로, 이 노조들과 협력하여 단체협약, 사회보장 혜택을 쟁취하고 이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선함.
- d. 국경을 넘는 연대 MOU 조항을 강화하고 더 자세히 명시함.
- e. 경찰의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넘는 운전자들에게 임시 관리카드를 발급해줌.



A14: 항공 노동자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다음을 언급함:

01. 최근 아르헨티나의 조종사 노조이자 ITF 가맹조직인 APLA의 사무총장 파블로 비로 (Pablo Biro)를 형사 고발한 것은 우리나라 항공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이 분야의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시도이다.
02. 아르헨티나 의회에 상정될 대통령령으로 항공 노동자의 파업권을 불법화하려는 시도는 항공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약화시킨다.
03. 항공 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a. 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급여 인상 거부
 - b. 국영 항공사인 아르헨티나항공과 인터카르고의 민영화 시도, 아르헨티나 항행기업(Air Navigation Company)의 민영화 가능성, 항공 당국의 합병 프로젝트.
 - c. 아르헨티나 항공산업의 고용 기준과 노동자 권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항공자유화협정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하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동의 시도.
04. 이는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공격의 일환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운수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벌일 권리를 제한할 필수서비스법을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05. ITF 글로벌 총회는 전 세계 운수 노조를 위한 최대 규모의 행사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노동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우파 정부가 부상하고 있으며, 반노조 및 반인권적인 의제에 직면해 있다.

다음을 인식함:

06. 무정부주의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항공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달고 있다. 인구의 54% 이상이 빈곤층이며 빈곤층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
07. ITF 소속 노조는 급여와 경제 현실 사이에 80% 이상의 격차가 있다며 임금 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위 상황을 이용해 공식 선전을 통해 노조와 노조 지도자들에게 낙인을 찍으려는 혼란스러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여론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순간부터 시위권과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
08. 이것이 바로 민영화 전략이다. 예산을 삭감하여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화가 나고, 이를 핑계로 민간 자본의 손에 넘기는 것이다.
09. 노조는 노동자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새로운 민영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운수 노조는 '운수테이블'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노조원의 권리에 대한 공격에 맞서기로 결의했다.

10. APA의 에드가르도 라노(Edgardo Llano), APLA의 파블로 비로, AAA의 후안 파블로 브레이(Juan Pablo Brey)와 같은 국가 지도자들은 정부의 박해와 괴롭힘의 명백한 표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잘못된 논리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주장을 징계하고 침묵시키려 한다. 사법 시스템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 모든 기소를 기각했으며, 여러 차례의 기소 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11. 그러나 지도자와 그 조직에 대한 거짓말과 허위사실은 멈추지 않는다. 분명한 목표는 항의의 목소리를 규율하고 침묵시키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노동자와 그 조직에 반하는 지속적인 선전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2. 아르헨티나 민간항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회사의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항공자유화 정책에 기반하여, 아르헨티나항공과 인터카고는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국영 기업이지만, 자유 시장이라는 명분 아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르헨티나 영공의 주권과 방어뿐만 아니라 운항 안전이 아르헨티나 국가의 책임인 아르헨티나 상공 전역의 항공항법서비스(EANA)의 민영화 가능성도 마찬가지이다.
13. 이 극우 자유주의 정부가 기어이 아르헨티나 항공 노조의 투쟁을 꺾는다면, 이는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조 파괴의 선례가 될 것이다.
14.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아르헨티나 항공 노조가 겪고 있는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르헨티나 항공 노조의 투쟁함전 세계가 연대할 수 있도록 조율함.
 - b. 전 세계 항공분과에서 노조 투쟁을 박해하고 낙인 찍는 자유주의 정책의 이러한 새로운 시나리오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ITF 항공분과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하고 지원함.
 - c. 국영 항공사의 민영화 및/또는 항공자유화 정책에 현재 대항하고 있거나 그간 대항해 온 노조들 간에 협력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한 국가적, 세계적 노력을 강화함.



A15: 민간항공 노동자를 위한 보다 나은 글로벌 규제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신자유주의 정책과 규제 완화는 승무원의 일자리 품질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악영향을 주는 급락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항공사들은 특히 저가 항공사가 더 낮은 기준 중 일부를 설정하는 식의, 새로운 고용 형태와 새로운 운영 체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항공사들이 이전에는 표값으로 경쟁했다면, 이제는 노동 및 임금 조건과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는 민간항공 피고용인들의 노동과 생활 품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02. 노동 및 생활 조건이 악화되면서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급증할 때, 누가 감히 실직 위험까지 감수하며 안전과 노동 환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겠는가? 유니언의 노동조합 신문인 콜레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실 승무원의 40%가 사용주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결국 실직할까 봐 감히 안전 결함을 보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03. 많은 업무량과 불안정한 일자리, 고용 불안, 잦은 조직 구조의 변화는 부적절한 보고와 학습 분위기, 열악한 소통과 안전 책무, 양질의 안전 노동을 위한 자원 부족, 체계적 안전 노동의 결함이 특징인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04. 이러한 고위험 요소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승무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저가 항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 중 일부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일부 경우에,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된 승무원의 경우 실제 사용주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위험을 악화된다. 또한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다른 항공사가 준수하고 있는 세금 및 사회보장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불안정한 고용을 이용하기도 한다.
05. 이제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내야 할 때이다. 글로벌 규정이 부족하고, 많은 국제 노동기준의 적용 범위에서 항공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건안전 위험과 폭력 및 괴롭힘이 만연하다.
06. 유니오넨은 ITF 민간항공분과와 ITF 총회에게 다음을 수행함으로써 민간항공 부문의 공정한 경쟁 환경과 양질의 노동조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함
 - 글로벌, 지역, 다자 및 국가 메커니즘은 물론, 연대 전술의 사용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기업과 국가가 민간 항공 부문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제함.

- 총회 간 기간 동안 민간항공 부문을 더 제대로 규제하고 양질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함.
- 각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ILO, ICAO, ITF 등 국제기구와 상설 3자 협력 체제를 구축함.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업계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4월에 개최된 민간항공 부문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 관한 ILO 기술 회의의 결론을 바탕으로 이 지속적인 3자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



A16: 항공 노동과 사회 문제는 반드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운수 경제개발 의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a. 2023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ITF 항공분과 회의에서 승인된 항공 뉴딜은 주장한다: "코로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항공 종사자들은 최전선에 있었다", 그리고 "항공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절감 압박은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환경에서 [...] 항공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확히,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ITF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조건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것이다.
- b.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LO 간의 2022년 협약이 항공 부문의 노동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ILO의 2023 기술회의는 항공 부문 일자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조치를 제안했다.
- c. ITF와 국제항공조종사연맹(IFALPA)은 ICAO 항공운수규정패널(ATRP)에 10년 이상 참여하면서 노동자 보호가 모든 규제 자유화 제안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옹호하는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2024년 4월 현재, ATRP는 공정 경쟁, 노동 및 사회적 문제에 관한 조항을 생략한 항공사 소유권 자유화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후, 다자간 협약 업무를 중단하고 대신 각국이 개별 항공 서비스에

관한 양자 협약에 채택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과 사회, 공정 경쟁 조항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 d. IFALPA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해온 ITF의 ATRP에 관한 업무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성과에 있어 필수적이다.
- e. 또한 ICAO는 노동 및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또다른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항공기 초단기 임대는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 규제 기관이 서로 간에 감독을 매우 빨리 위임함으로써 항공기 초단기 임대를 가능케 하는 국경간 운행에 관한 협동감독(COCBO). 또한 이 제안은, 초단기 임대로 인해 항공기가 변경되므로 조종사와 승무원이 사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승무원 상호운용성'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현재 안전에 직결된 경제적, 정치적, 노동,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속고가 부족한 상태이다. IFALPA는 COCBO 프로젝트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다.
- f. ICAO의 ATRP와 COCBO 이외에도, ITF는 ICAO 항공교통관리운영패널(ATMOPSP)에서 영향력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ITF는 ICAO의 본부 인근인 몬트리올에 사무소를 열었고 ICAO 내 ITF 영향력의 핵심이 되었다. 이는 ITF의 많은 가맹조직들이 참여하여 ICAO의 실무단과 패널, 총회 전반을 통해 ITF의 옹호활동을 지원하는 자원과 전문가를 제공해준 덕이다.

0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ICAO 경제개발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노동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ICAO 업무의 영향들을 사려 깊게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 노동과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옹호함;
- b. 모든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ICAO 경제개발 이니셔티브를 상기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두 조직에 가맹된 공통 가맹조직의 지원을 받아 국제항공조종사연맹(IFALPA)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옹호 활동을 진행함;
- c. 항공업계와 그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ICAO에서 ITF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늘림;
- d. ICAO ATMOPS 패널 및 그 외 ICAO 조직 영역 내에서 IFALPA 및 그 외 국제전문직협회들과 지속적으로 협조함;
- e. ICAO 인근에 있는 ITF의 몬트리올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여 가맹조직들의 강력한 존재감도 유지하고 항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강화되도록 함.
- f. ITF는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적절한 경우 노동 및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을 인식하고 포함시키도록 옹호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결의함.



A17: 우크라이나 운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ITF와 그 가맹조직들이 우크라이나 운수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제공한 상당한 지원과 적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칭찬함.
02. 바다와 강 항구, 철도 차고, 역과 선로, 승용차 등 시민의 기반시설과 운수 기반시설을 파괴한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함.
03. 산업 현장과 도시 기반시설의 파괴로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공중 보건이 위태로워졌으며, 환경 재앙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했음을 인정함.
04. 우크라이나 항만 노동자, 항구 직원, 철도 노동자, 기타 운수노동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의 어렵고 종종 심각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함.
05.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서 우크라이나 선원의 핵심적 역할, 화물 취급에서 우크라이나 항만 노동자의 핵심적 역할, 그리고 근 방지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인도주의적 활동 유지,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한 필수 곡물 보급품 운송에서 철도 노동자 및 기타 우크라이나 운수노동자들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함.
06.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운수노동자들을 애도하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노조에 경의를 표함.
07. 우크라이나 운수 기반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운수노동자들의 노력을 지지함.
08. 주요 기반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동원으로부터의 제한된 범위의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함.
09.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다음을 망라하는, 우크라이나 운수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함:
 - 다가오는 총회 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ITF의 높은 수준의 임무를 촉진하고 다른 가맹조직들에게 우크라이나 사정을 평가하는 진상 조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함;
 - 해양산업에 대한 교육과 접근성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 공정한 전환(Maritime Just Transition) 기술협의회 프로그램의 시범국가로 우크라이나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우크라이나 운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고 ILO의 지원과 참여를 통해 방안을 모색함;

- 파리 MOU 및 흑해 MOU 사무국과의 약속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역내 해운 및 선원의 현황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박의 안전과 더불어, 선원의 계약상 권리를 점검함;
- 우크라이나 운수 노조 운동을 강화하고 그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인 전후 인도주의적 노력과 교육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ITF와 그 가맹조직들이 출자한 ITF-ETF 연대기금을 유지함.
- 우크라이나 정부에 선원과 철도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핵심 노동자로 인정하고 다음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투명한 국경 통과 절차 시행, 전자 서비스를 통한 자격 서류와 선원 신분증, 외국인 여권의 원격 취득 용이화 등 우크라이나 선원들의 노동권을 추가적으로 보호하여 글로벌 해운 공급망 운영을 중단 없이 유지함.
 -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추가적인 보호와 동기부여를 적용하는 등 우크라이나 철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추가적으로 보호함.



A18: 호주 전략선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편의치적(FOC)선의 사용 증가가 호주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현지 노동시장, 청년 선원들의 기술 및 훈련 기회 약화 등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기함.
02.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국가 공급망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선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전략선단(Australian Strategic Fleet)을 설립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약속과 자금 지원을 환영함. 이와 더불어, 호주전략선단은 자연재해나 분쟁 또는 기타 위기 상황에서 징발될 수 있다.
03. 인프라교통부 장관은 향후 몇 년 동안 12척의 전략 선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에 첫 번째 시범 전략 선단을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04. 12척의 전략 선단을 인도할 계획은 지난 40년 동안 호주 연안 무역의 가장 큰 부양책이 될 것이며 호주 등록 연안 무역 선단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임을 인식함.
05. 이 프로그램은 호주 연안 무역을 위한 호주 국적의 승무원이 승선한 선박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 호주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며 FOC 선박 및 운영업체와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임을 확인함.

06. 따라서 호주 정부가 전략선단태스크포스 권고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개정 및 시행하여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도록 호주해양전력엔지니어연구소(AIMPE)와 호주해양장교연합(AMOU), 호주해운노동조합(MUA)에 지원과 응호를 제공할 것을 ITF에게 촉구함.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호주 국영 승무원 승선 선박을 약화시키는 임시 해운 면허 사용을 장려하는, 2012년 연안무역(호주해운활성화)법과 1981년 해운등록법의 허점을 보완함.
- 2012년 항해법, 1901년 관세법, 2003년 해상운송 및 해양시설 보안법, 2015년 호주국경수비대법, 2009년 해상승무원비자 및 공정업무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 해운세 인센티브 강화
- 전략선단 부과금 및 훈련 부과금 시행
- MLC 2006 협약 규정 2.8에 따라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의 경력 경로 개발을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3자간 지원을 받아 개발되어야 하며, 여성과 청년 노동자 등 업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해상 경력을 촉진하는 인력 채용 및 유지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A19: 파키스탄 철도 노동조합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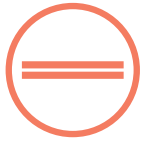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언급함:

01. 파키스탄 철도노동조합(Railway Workers' Union) (개방노선)은 ITF 가맹조직으로 1993년부터 파키스탄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결사 및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사와 단결권,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는 (파키스탄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 87호 및 9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02. 노동조합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 노조는 2024년 9월 30일 카라치(Karachi) 디젤셰드매장((Diesel Shed Shops) 앞에서 평화 시위를 했다. 시위 노동자들은 작업장 인근 철도에 의해 자신에게 할당된 주거구역에 수도, 전기, 가스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비정규직 채용, 도급화를 구실로 현재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03. 카라치의 관할 경정은 시위 중인 노동자들을 찾아가 시위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노조 지도부를 협박했다. 회장과 CEO, 관할 경정(DS)은 우리의 고충에 대해 귀기울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안타깝게도, 다음날 카라치 관할 경정이 노조 주요 지도부의 철도병원을 포함한 모든 철도공사 부지의 방문/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회람을 발행했고, 노조 사무국 직원 3명이 전출되어 노동자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04. 결의안:
 - a. 파키스탄 철도 당국이 철도공사 부지에서 노조 활동을 중단시킨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b. 또한 철도 당국이 파키스탄 헌법과 ILO 비준 핵심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함.
 - c. 파키스탄 철도의 인권/노동조합 권리에 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도 당국을 규탄함.
 - d. 또한 파키스탄 철도 당국이 물, 전기, 가스 공급과 같은 인간의 기초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규탄함.

- e. 철도 당국이 노동자의 월급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을 규탄함.
- f. 또한 노조 지도부를 가족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출시킨 철도 당국의 괴롭힘을 규탄함.
- g. 비정규직화, 외주화, 각종 용역 외주화를 구실로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켜 현재의 인력과 노조의 힘에 악영향을 끼친 철도 당국을 규탄함.
- h. 개입하여 철도 당국이 노조 지도부의 철도 부지 출입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우편환을 철회하도록 지시할 것을 파키스탄 정부에게 촉구함.
- i. 파키스탄 철도의 개방노선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파키스탄 정부에 촉구함.
- j. 파키스탄 대통령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ITF 가맹 노조의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파키스탄 철도 당국에게 지시하는 등 연대 지원 활동을 시작할 것을 ITF에게 촉구함.



B01: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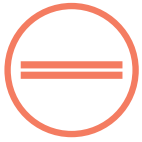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를 언급함:

01. 비공식 운수노동자들을 조직하고(제1 결의안), 성소수자(LGBT+) 노동조합 정책을 촉구하며(제5 결의안), 선원과 항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제20 결의안), 2018년 제44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약속들을 언급함.
02. 약속한 곳을 언급함:
 - a. 2022년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직장 내 안전과 성평등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함(제2 결의안).
 - b. 2022년 10월 집행위원회에서, 현장의 여성 운수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장애물 외에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인정하고 ITF와 그 가맹조직들과 협력하여 해결하겠다고 약속함(여성운수노동자위원회가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
 - c. 2023년 3월 도시운수분과 회의에서, 공공운수 부문의 성소수자(LGBT+) 평등을 추진하고(제5 결의안), 모든 우리의 공공교통(OPT) 프로젝트 및 활동에서 기존에 합의한 성평등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공공운수 직장 내 여성의 포용 및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함.
 - d. 2023년 3월 도로운수분과 회의에서, 도로운수 및 창고업 부문에서 여성의 포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사용인 전략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함.
 - e. 2023년 3월 철도분과 회의에서, 전 세계 철도 부문 직장 내 장애인 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제2 결의안), 청년 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대표성을 촉구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Safe and Sustainable Rail) 캠페인의 일환으로 철도 내 성평등을 촉구하는 ITF 행동계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함.
 - f. 2023년 3월 도로운수분과 회의와 도시운수분과 회의, 철도분과 회의에서, 운수노동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한 귀가(Get Me Home Safely)'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함(제4 결의안)
 - g. 2023년 4월 관광분과 회의에서, 성소수자(LGBT+) 노동자들의 권리와 평등을 증진시킬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함(제4 결의안)
 - h. 2023년 3월 철도분과 회의에서, 전 세계 철도 부문 직장에서 장애인 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제2 결의안), 장애인과 연금 수급자, 통근자 단체와 협력하여 직원 감축 및 매표소 폐쇄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함
 - i. 2023년 8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연안 지역 회의에서, 성소수자(LGBT+) 노동자들의 권리와 평등을 증진시킬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하고(제5 결의안), 가맹조직 및 동맹단체들 사이에서 '방관자 이상이 되자(Be More than a Bystander)'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며 젠더 리더들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함(제11 결의안)

- j. 2023년 12월 선원분과 회의에서, 성소수자 (LGBT+) 해양 전문가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LGBT+ 쟁점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세계노조연맹들과 협력하고,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LGBT+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ITF가 전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제 5 결의안).
03. 2022년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2023년 2월 아랍세계, 2023년 8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2024년 3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 여성회의 및 지역 청년회의에서 도출된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언급함.
 04. 2023년 9월 여성운수노동자 회의와 2023년 10월 청년운수노동자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권고사항을 승인함.
 05.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할 능력 면에서 노동조합이 유일하고 강력한 조직임을 인식함. 분열은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불평등을 낳고, 권리와 급여, 조건 측면에서 바닥치기 경쟁을 부추긴다. 우리는 직장과 사회에서 성별, 인종 또는 피부색, 나이,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신념, 이주 신분 및 국가,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여성 혐오, 편견 및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된 노동계급 운동으로서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단결, 다양성, 연대는 우리 힘의 토대입니다.
 06. 여성 운수노동자와 청년 운수노동자, 기타 소수 집단이 보건안전, 기후 변화의 영향, 신기술 도입, 공급망 압력 등 여러 직장 내 문제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함.
 07. 모두를 위한 효과적인 평생 학습에 대한 [ILO 100주년 선언](#)의 약속과 운수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2023 ILO 양질의 견습직에 관한 권고 208호](#)를 언급함.
 08. 업계와 우리 운동의 문화와 관행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 낙인에 맞서고, 불의를 폭로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운수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09. 노동자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접근 방식에 관한 보편적 가치와 모범사례를 가맹조직 간에 공유하는 ITF의 옹호 역할을 인식함.
 10. 정부, 사용자, 투자자에게 다음을 촉구함:
 - a. 차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하고 유급 노동과 안전, 존엄성, 평등, 존중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함.
 - b. 여성 운수노동자와 소수 노동자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 190호](#)와 기타 산업안전보건 표준을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함.
 - c. ITF 및 가맹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운송 운영관리와 공급망에서 노동 및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함.
 - d.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ESG) 표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약속에 통합된 평등 정책을 유효하게 이행함.
 11.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진보적인 평등권 법안 옹호와 글로벌 표준 설정, 조직화, 캠페인, 단체교섭, 법적 조치,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대표자의 리더십을 보장하고 평등 문제를 ITF의 우선순위에 의미 있게 통합하고 ITF 지배구조 내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운수노동자와 청년 운수노동자, 기타 과소대표된 그룹의 운수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b. ITF 활동에서 여성과 청년 노동자들의 활동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맹조직을 지원함
 - c. 특히 청년 운수노동자와 여성 운수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두고 ITF의 노조구축팀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 d. 여성 운수노동자와 청년 운수노동자, 비공식 운수노동자가 국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ITF 글로벌 캠페인의 중심으로서 완전히

참여하고 리더십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원칙의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함

- e. 여성옹호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방관자 이상의 역할을 하며, 모든 ITF
활동에서 상호 존중을 보장함
- f. 가맹조직들이 차별에 관한 ILO 협약 111호(
고용 및 직업)를 활용하도록 지원함
- g. 협약을 국내법 및 지역 표준 내에서 비준하기
위한 가맹조직의 캠페인을 지원하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부문별 및 사업장별로 정책
및 단체협약에서 C190 문구를 협상함으로써
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 190호의 비준과
이행이 지속적으로 우선시되도록 유지함.



B02: 성소수자(LGBT+)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를 언급함:

01. 다음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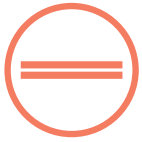
- 성소수자들은 배제와 낙인, 차별, 폭력과 괴롭힘, 살해, 성폭력, 위협과 혐오 발언에 시달린다. 이들은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당하며 여러 방식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를 겪고 있다. 이는 차별적 법규와 직장 내 차별적 관행, 차별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직장 내 차별은 양질의 일자리에 어긋나고 빈곤을 야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ILO 기본 협약 중 하나인) 1958년 (고용 및 직업상) 차별에 관한 ILO 협약 111호는 제1.1.a항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명백한 보호를 제공하며, 2019년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 190호와 권고안 206호는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인정한다.
- 차별로 인한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며, 성소수자들(LGBT+)의 상황을 개선하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볼 것이다.

- 여러 국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LGBT+ 포용이 모든 사람이 존중 받고 공평하게 대우 받으며 직장 내 성과에 기여하고 영향을 줄 권한을 갖도록 돕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ITF는 노동조합과 직장, 그리고 사회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태도와 관행, 법규를 변화시켜 차별 없는 세상을 지지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0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LGBT+ 문제에 관한 자문단을 만들어 ITF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노동조합과 직장 내 평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ITF 정책과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함과 더불어, 운수업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쟁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LGBT+ 노동자들이 조직화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LGBT+ 쟁점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협약과 직장 정책, 그 외 도구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독려함.

- 사용자와 협상하고 협력하는 등 노조의 의사결정 구조는 물론 운송업계 내 LGBT+ 포용을 증진시킴.
- ILO와 국제노조연맹들, 비정부기구들 (NGOs)과 협력하여 LGBT+ 운수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과정, 훈련을 개발하고 시행함.



B03: 전 세계 운수 부문의 장애 평등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를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전 세계에 걸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수준의 직업 세계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다.
- 다양한 학습과 행동, 발달 장애는 물론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거나 즉각 알아차리지 못한다. 발화 및 언어 장애와 시력 감소, 자폐증, 우울증, 오래 지속된 코로나19는 숨겨진 장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장애 또는)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부문에서 장애(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가 있는 노동자는 직장 생활 중 주기적으로 장벽에 직면한다. 장벽은 물리적, 태도, 의사소통 및 사회적인 장벽일 수 있다.
- 노동조합은 개선사항을 협상하고 경사로나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없는 건물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비롯한,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장애가 있는 노동자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가정을 극복하고, 문서를 큰 활자체나 점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소통방법을 개선하고, 장애의 의학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이 채택되도록 옹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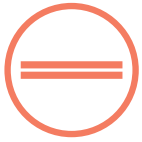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의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치료나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낙인과 편견, 차별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적 모델은 사람들이 장애나 서로 다른 점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해 장애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의 인권 모델이며 현재 국제적인 수용과 인정을 받고 있다.

02. 추가로 인정하는 점은:

- ITF 철도분과는 이미 2023년 철도분과 회의에서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세계 장애인 철도 노동자의 평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 민간항공과 관광, 도로운수, 도시운수, 해운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므로 철도 부문에서 시작된 이 노력은 ITF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부문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양하고 도전과제는 고유하겠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동일하다. 모든 운수 부문에 걸친 평등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ITF는 반드시 장애인 운수노동자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철저히 매핑하고 이해해야 하며, 운수업이 모든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번창하는, 포용적이고 환영하는 부문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03.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장애인 노동자의 채용, 유지 및 승진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등 전 세계 운수 부문에서 장애 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부문에서 이미 수행 중인 노력을 모든 ITF 운수분과로 확대함.
- ITF와 가맹조직, 전 세계 운수업체의 민주적 구조를 통해,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장애인 노동자가 자기 결정권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이지 않거나 '숨겨진'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직장 문제와 불평등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운수 부문에서 그들의 조건과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장애의 사회 모델을 촉진하고 이를 보다 폭넓게 ITF의 평등 업무에 내포시킴.
-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운수 사용주와 정부가 사회 모델을 채택하도록 옹호하는 가맹조직을 지원함.
- 가맹조직의 노조가 있는 다국적 기업에게 장애를 포함한 철저한 평등 및 다양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촉구함. 이러한 평가는 모든 운영 국가와 운송 시스템 및 공급망 전반에서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



B04: ITF의 청년운수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를 언급함:

01. ITF 총회가 운수업 내 청년 노동자들의 증가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02. 2018년 제44차 ITF 총회에서 통과된 제20 결의안: 청년 선원 및 항만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모든 운수부문에 적용되는 청년운수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중대한 방법을 개괄하고 그 결과 청년 멤버십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03. ITF 집행위원회가 청년운수노동자들을 ITF의 필수적인 현재이자 미래 지도자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04. 우리는 ITF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a. ITF 프로젝트 및 활동과 ITF 국가조정위원회(NCC)에서 청년운수노동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약속과, 청년노동자 연령대에만 특별 할당된 것 외에도 의사결정 직책을 맡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 b. 노조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모색하는 청년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함.
 - c. 청년운수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역 프레임워크와 기구 내 탄탄한 청년운수노동자 기구의 구축 및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d. 모든 ITF 가맹조직들에게 운수업 내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증폭시키기 위한 청년 조직 구축을 촉구함. 가맹조직에 걸쳐 청년운수노동자들의 구조화된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활동을 지원함.
 - e. 성별, 국적, 인종, 연령, 성적 지향, 장애, 또는 신념을 기반으로 한 착취 또는 차별로부터 모든 청년운수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함.
 - f. 불평등으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불안정과 실업, 빈곤에 더 많이 시달리는 만큼, 청년 여성운수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인지도를 높임.
 - g. 운수 부문에서 무급 및 불공정 인턴십을 폐지하고 모든 인턴십이 공정한 보상, 의미 있는 교육 경험,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지하는 글로벌 행동을 조정함.
 - h. 전 세계 청년운수노동자 네트워크의 성장 및 연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운수노동자들에 관한 멤버십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함.
 - i. 지역 차원에서 청년운수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업무 계획과 ITF 본사의 우선사항을 일치키는 일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함.

- j. 다른 글로벌 노조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여 청년운수노동자를 위한 훈련 및 교육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기회를 지원하여 ILO 기준 및 훈련 자료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함. 인권 보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운수 및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된 각국 법률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k. 청년위원회에서 전환된 후 청년노동자들의 경험과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손실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함. 여기에는 지속적인 멘토링과 리더십 역할의 기회, 노조 활동 및 ITF에 대한 지속적 참여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B05: 앞으로 나아가기: 지난 25년 ITF 여성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를 언급함:

01. ITF 창설 102년이 지난, 1998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TF 총회에서 ITF 여성운수노동자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5년 넘게 달성한 성취에 경의를 표함.

02. 여성운수노동자의 근무 생활을 개선하고 여성의 활동성과 리더십을 강화하여 다음을 포함한, 여성운수노동자의 가시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행동을 언급함:

- 수백만명의 여성운수노동자들을 동원한 주요 ITF 캠페인은 전 세계의 권리를 강화했고, 직장 생활을 변모시켰다.
- 2019년 ILO 협약 190호의 채택 등 -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행동, 전 세계 ITF 여성옹호프로그램의 수립, 직장에 미치는 가정 폭력의 영향 폭로; 임신과 출산; ITF 위생현장 등 모든 운수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위생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운수업 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부터 여성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핵심인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 ITF 국가조정위원회(NCC)와 지역 및 전국 여성운수노동자위원회 등 모든 수준의 여성운수노동자의 활동성과 리더십. 여성운수노동자의 목소리는, 여성운수노동자들이 장벽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요구하고 기존의 특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의미 있는 진보와 포용성을 이끌어내는 등 진보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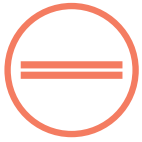
- ITF 집행위원회와 ITF 지도부 전체의 지원
- 하얀 리본(White Ribbon) 캠페인과 서약, '방관자 이상이 되자(Be More than a Bystander)' 프로그램 등 성평등을 위한 운수 부문 내 남성 협력자들의 역할.

03.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지켜야 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인식함. 그 어떤 성과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운수업은 아직도 불평등하고, 여성의 활동성과 리더십은 여전히 장벽에 부딪힌다. 2023년 ITF 여성운수노동자회의가 강력히 천명한대로: “여성운수노동자는 반드시 발언권을 가져야 하며, 직장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정부와의 단체교섭, 그리고 노조 내에서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은 운수업에 속해 있고, 노조에 속해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도 속해 있으며, 지도부에도 속한다 여기는 우리의 세상이기도 하다.” (#ThisIsOurWorldToo)

04. 따라서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강력한 기초 위에 구축하며 - 향후 25년과 그 이후를 향해 나아갈 때 ITF 여성운수노동자위원회와 회의, ITF 여성부서가 주도한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진전시킴
- 직장과 더 넓은 지역사회, 전 세계 및 지역 운수업, 모든 수준의 ITF,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노조에서도 여성운수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인 배제 문제를 해결함 - 캠페인과 교섭 테이블을 통해 현 상황에 도전하고, 연구와 정책, 명확한 변화 지표와 여성에게 공평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젠더 혁신적 접근방식으로 뒷받침함.

- 침묵을 깨고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가맹조직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지원함:
 - 모든 기업과 노조 내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함.
 - 기업이 성적 괴롭힘 및 성차별 행위에 대한 전문성과 적절한 이해를 갖춘 전문 담당자를 임명하고, 성적 괴롭힘 및 성차별 행위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여성 옹호자를 포함한 노조 대표의 유급 휴가를 존중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함.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한 여성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개발
- 대표자가 직장 내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화두를 만든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지원함.
- 여성운수노동자 조직화와 동원을 우선시하고, 현지, 지역, 전 세계, 부문 수준에서 운수업과 ITF 운동의 운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운수노동자의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구축함.
- 이 25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배우고 얻도록 보장함 ITF 여성이 직면한 장벽과 좌절은 물론, 그들이 이룬 성과와 진전은, 인종차별과 성소수자와 장애인, 청년, 이주민, 비공식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알려주고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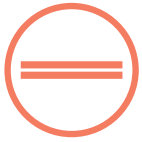


B06: 청년 해상노동자를 위한 노동의 미래를 촉진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를 언급함:

01. 향후 전망에 따르면 운수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핵심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해양 교육 및 훈련을 개선하고, 노동자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조치 없이 숙련되고 유능한 노동자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함.
02. 복지와 윤리적 대우, 포용성, 사회 정의, 공정한 경력 기회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매력적인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현재의 필요성을 자각함.
03. 80만 명의 선원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위한 글로벌 교육 기준의 강화와 숙련도 향상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녹색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변화를 인식함.
04. 국제 선박에 탑승하는 사관생도와 훈련생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함.
05. 자동화와 고용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부분적인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의 요건과 각 개인의 업무량이 달라지면서 고용 감소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함.
06. ITF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a.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을 통해, 청년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게 직무 개발 및 훈련 등 업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과, 선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타 조항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지속함.
 - b. 채용, 유지, 해상에서의 경력 증진과, 청년 선원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교육과 사관생도 활동 및 견습직 등 해양공정한전환태스크포스(Maritime Just Transition Task Force) 원칙을 선도함.
 - c. 휴식시간 요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선박 승선 인력 배치 수준을 검토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 등, 인력 배치와 안전 운항, 선내 안전 문화와 업무량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관련 관행을 검토하도록 옹호함.
 - d. 선원에게 허용되고 종종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적으로 허용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근무 패턴을 조화롭게 만들고 피로와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함.

- e. 전 세계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소위 견습생과 수습생, 사관생도 등 청년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f. 선박에서 근무하는 견습생과 수습생, 사관생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ITF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교육 및 훈련 목적의 선상 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계약 조건을 확보함.
- g. 기후 친화적인 추진 기술 및 연료로의 전환은 물론, 디지털화 및 자동화와 동행하고, 육상, 내륙 수로 및 해상에서 노동자에게 주요 도전과제를 주는 지속적인 선박 크기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직원 자격과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요구함.
- h. ITF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상선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견습생, 훈련생 및 사관생도 수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함.



B07: 청년 교육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평등'를 언급함:

01. 우리는 서비스의 혼란과 노사 분쟁의 증가가 특징인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 감축과 대량 사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조직과 전략, 직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직원에게 지정된 업무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뜻밖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지정되지 않은 업무/행동(일상적인 행동, 노하우, 헌신)이다.
02. 자격을 갖춘 직원의 필요성은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사회적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고 언급함.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 복리후생 및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쌓아온 집단적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03.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다음과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미래와 과거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청년들을 훈련시킴:
 - 이 훈련이 끝날 때, 국제 경험에 기반하여 철도 노동자들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철도 경제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수립하도록, 훈련생들은 ITF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캠페인(SSR)의 4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동성과 상품 공급, 기후 문제에 직면하여 철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캠페인(SSR)에 기반한 공통 모델을 구축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함:
 - 노조의 요구사항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맞는가?
 - 우리는 사회의 어떤 선택을 제안해야 하는가?
 - 전 세계에서 우리의 공통적인 우선사항은 무엇인가?
- 교육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다양한 철도 시스템 운영(지정된 및 실질적인)
 - 전문직(고정형 및 이동형; 운영업체 및 인프라)
 - 경제적 모델(공공, 민간, 혼합)
 - 철도 운수에 관한 사람들의 수요
 - 직원 유지(사회 보호, 연금 및 임금)
- 04. 철도산업에 도입된 신기술에 대해 청년노동자들에게 적시에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C01: 운수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안전과 건강'을 언급함:

01. 제9 결의안의 약속사항을 언급함. 가맹조직들의 산업안전보건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42차 총회에서 채택된 직장 내 안전보건.

02. 약속한 곳을 언급함:

a. 2022년 9월 민간항공분과 회의 및 '항공 뉴딜 정책'에서 안전보건을 우선시하는 위기 제로 문화를 촉구할 것을 약속함.

b. 2022년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직장 내 안전 및 젠더 평등을 촉구할 것을 약속함(제4 결의안).

c. 2023년 2월 아랍세계 지역 회의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 담화의 조율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제1 결의안).

d. 2023년 3월 도시운수분과 회의에서, 공공교통 직장 내 안전보건 강화를 약속함(제6 결의안).

e. 2023년 3월 도로운수분과 회의에서, 장거리 여객운수 내 안전을 보호하고(제2 결의안), 글로벌 안전운임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약속함(제3 결의안).

f. 2023년 3월 내륙운수분과 회의에서 안전한 출퇴근을 촉구할 것을 약속함.

g. 2023년 4월 관광분과 회의에서 '사람, 힘, 지구' 전략의 일환으로 인신매매를 방지할 것을 약속함.

h. 2023년 8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회의에서 ITF 활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제1 결의안), 안전 정책 및 절차의 설계 및 이행 시 운수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것을 약속함(제8 결의안).

i. 2023년 10월 청년운수노동자 회의에서 모든 부문에 걸친 정신건강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에 전념할 것을 약속함.

j. 2023년 12월 항운분과 회의에서 모든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독려하고 항만의 안전보건 개선에 대한 교육을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함.

k. 2023년 12월 선원분과 회의에서, 전기 자동차 운송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결의안 6).

03. 교통 혼잡, 국경 간 운송, 기후 변화 및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피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유발하는 직장 내 위험으로부터 모든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운수업에 대한 기본권을 인식함.

04. 특히 **비표준 형태의 고용** 및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차별,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임금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산업안전보건 위험을 경감시킬 필요성을 인식함.

05. 특히 대중교통, 항공 운송 및 해상 여객 운송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직원에 대한 승객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급증은 우려할 만한 요인이고, 폭력 경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 노동자 지원은 물론 난폭하거나 폭력적인 승객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기타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함.
06. 위험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을 인식하고,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성적 지향, 장애 등에 기반하여 기타 소외된 집단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함.
07. 운수노동자들이 글로벌, 지역 및 현지에서 노조 대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로 화물, 공항 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요금제와 산업 및 공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이니셔티브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노동 주도적 해결안을 요구함.
08. 선원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협상을 통해 [해사노동협약](#) 채택과 [직업세계에서의 폭력, 괴롭힘 및 차별에 관한 ILO 협약 190호](#), [운송 부문 내 양질의 일자리 및 도로안전 증진에 관한 ILO 가이드라인](#), [공정한 전환에 관한 2023 ILO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낸 것처럼, 다자간 협력과 3자간 해결책의 필요성을 인식함.
0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각적으로 취한 노력과 운수노동자 보호에서의 ITF 리더십, 특히 선박을 오가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인 집단 및 유엔 기관들과 협력한 ITF의 노력을 인식함.
10.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ITF 분과와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인식함.
 - a. 아랍 세계와 라틴아메리카의 항운분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 b. ITF 위생현장
 - c. 여성옹호프로그램
 - d. 여성 공공교통 노동자들과 선원들에게 정신건강 교육
 - e. 피로와 정신건강, 대하기 힘든 승객에 관한 민간항공분과 산업안전보건 이니셔티브
11. 정부에 다음을 요청함:
 - a. ILO 협약들, [C155 산업안전보건](#), [C187 산업안전보건 증진 프레임워크](#), [C161 산업보건 서비스](#), [C152 산업안전보건\(부두 작업\)](#), [C188 수산업 일자리](#), [C190 폭력 및 괴롭힘 협약](#)을 포함한 국제 산업안전보건 표준 및 법률 문서를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함.
 - b.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인권실사 및 기업과실치사법 등 OSH 표준을 설정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주의의무 법안을 제정하고 강화함.
 - c.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법률 위반을 억지하는 제재를 부과함.
 - d. 사회적 보호 조치를 통해 비표준 고용 형태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기본권과, 비공식 고용을 노동자 주도로 공식화하는 것을 보장함.

12. 사용인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글로벌 공급망의 모든 운수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함.
- b. 정책 및 조치의 설계와 이행에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들을 의미 있게 참여시키는 참여적 접근법을 구현함.
- c. 안전과, 신체는 물론 심리사회적 건강, 정신건강 및 복지를 다루는 포괄적이고 성인지적 접근법을 채택함.
- d.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이행하고 견습생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충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함.
- e. 출퇴근도 직장문제로 인식하고 돌봄 의무를 안전한 출퇴근 정책 채택으로까지 확대함.

13.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안전한 근무일정, 교육, 위생, 폭력 사건 데이터 수집·분석 등 폭력 및 괴롭힘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가맹조직들의 조직화와 캠페인, 교섭을 지원함.
- b.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조정하고 관련 노동조합 조직화와 협상 경험을 공유함.
- c. 다음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ITF의 모든 분과와 지역, 부서에서 진행함.
 - i. 양질의 위생와 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 ii. 안전한 출퇴근길과 '안전한 귀가' 캠페인을 전 세계로 확대함
 - iii. 교육을 받은 노조 대표들과 공동 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협의 구조.
- d.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글로벌 전략 2024-2030](#)의 이행을 지원하고, 제112차 및 제113차 국제노동회의(ILC)에서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법률 문서의 비준 및 이행, 법 개혁과정 및 표준 설정을 위한 캠페인에 기여함.



C02: 안전하게 귀가시켜주세요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안전과 건강'을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a. 교대 근무는 운수 부문에 내재되어 있으며 운송 시스템 전체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종종 심야 근무와 원거리 출근, 그로 인한 비사회적인 시간대의 출퇴근을 수반할 수 있다.
- b. 운수노동자들은 더 많은 대중을 위해 운수 시스템을 개방하기 위해 출근하거나 운수 시스템이 폐쇄된 경우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의 노조원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운수노동자를 누가 운송하는가?'이다.
- c. 많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 청년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LGBT+),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 이주노동자들은 야간 및 새벽 출퇴근 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한다.
- d. 사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직원에 대한 돌봄 의무가 종료된다고 생각한다. 국가 보건안전과 법적 제도는 이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 e.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모든 노동자, 특히 운수노동자에게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f. 수백만 명의 조합원들이 매일,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슬프게도 전 세계에 만연한 공공운수에서의 성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 집행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g. 총회 주제 중 하나는 안전이며, 가맹조직과 그 노조원, 그리고 ITF는 모두 직장과 그보다 넓은 지역사회 내의 성별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h. 사용주와 지역 및 국가 정부, 법 집행기관에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유나이티드(Unite)의 '안전한 귀가 (Get Me Home Safely)' 이니셔티브와 캠페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0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가맹조직들에게 ITF '안전한 귀가' 캠페인을 승인하고 지지하고 적극 참여하며 홍보함.
- b. 캠페인의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특히 비사회적 시간대의 출퇴근은 직원에 대한 사용주의 보건안전, 법적 책임과 정부의 책임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 여기에 나홀로 근무, 국경 간 또는 다중 관할권 근무, 중단 후 기지 복귀, '좌초된' 초국적 노동자(선원, 항공 승무원 등)의 송환, 극심한 기상 위험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도록 보장함.
- d. 대중교통 내 성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안과 엄격한 법 집행, 직원의 출퇴근 여정에 대한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내 또는 국제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집중함.
- e.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특히 야간 및 비수기 서비스의 낮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투자와 보조금, 운수의 공공소유를 지지함

- f. 정책을 조달 관행에 채택하고 공급망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권실사(HRDD)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채택하기 위해, 사용주들이 (예를 들어, 초국적 기업 계약을 통해) 초국적 피고용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캠페인을 진행함.
- g. 사용주가 출퇴근을 사용주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출퇴근 정책을 채용하는 데까지 돌봄 의무가 확대되도록 보장함. 가맹조직 내 관련 보고 체계 구축을 지원함
- h. 우리 가맹조직의 노조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글로벌 촉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가' 캠페인의 국제적 협동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러한 협동이 다른 글로벌노조연맹들과의 협업까지 망라하도록 함.
 - i. 출퇴근을 포함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ILO 협약 190의 비준 및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글로벌 ITF 캠페인을 적극 지원함.
 - j. 흑인과 소수민족, 이주 노동자, 장애인, 여성, 청년, LGBT+ 노동자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반영하는 국제 포럼을 개발하여, 이들 집단이 출퇴근 시 직면하는 특정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실행 방식에 직접적인 의견과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C03: 승무원 피로 위험 경감 - 항공 보건안전 및 규제 준수 보장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안전과 건강'을 언급함:

01.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생물학적 필수조건이다. 피로는 비행과 관련된 중대한 안전 위험으로,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고 반응 시간을 늦추며 까다로운 상황과 비상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킨다. 연장 근무, 수면 패턴의 붕괴, 잦은 시간대 변경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 및 대사 장애와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특정 압, 불임 문제,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퇴행성 질환의 위험 증가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02. 항공승무원(승무원이라고도 함)의 피로는 장기적으로 승무원의 건강과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0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 협약의 부속서 6, 파트 1과 이에 첨부된 피로관리법 감독 매뉴얼(문서 9966)은 피로 관리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법(: 처방적 접근법과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승무원이 업무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으며, 승무원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경제성과 생산성을 고려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에 더 중점을 두는 관행이 만연하다.
04. 각각의 접근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위험이 따르지만, 사전 예방조치, 교육, 균형 잡힌 업무량과 함께 올바르게 구현하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주가 불완전한 생체수학 모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여 승무원 및 해당 노조와의 적절한 협의나 고려 없이 승무원의 복지와 안전을 잠재적으로 희생시키는 놀라운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05.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초장거리 비행의 등장으로 피로 관리 전략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내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일반적인 8시간 연속 수면 주기를 두 번 놓치는 경우와 승무원이 근무하는 특수한 환경의 영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또한 조종사와 달리, 선실 승무원은 휴식 없이 승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감정 노동과 같은 독특한 심리사회적 위험에 직면한다.
06. 현재 관행이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의료 비상상황, 위기 또는 대피 시 승무원의 효과적인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07. 이러한 조건에서 승무원의 보건안전 영향을 재평가하여 비행 운항 중 승무원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8. 승무원과 조종사 모두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실 승무원에게 있어 적절한 휴식과 규정의 중요성은 조종실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 비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과 기상 관련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실 승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우려스럽다.

09. 2023년 4월에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기술 회의에서는 승무원을 포함한 항공업계 직원의 피로 관리가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피로가 항공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LO 회의의 결론은 피로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 전반적인 노동 조건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 기준과 FRMS 를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ILO는 항공업계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피로 관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ICAO와의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10. 앞서 언급한 항목과 문제를 고려하여, ITF에 다음을 요청함:

- 대기 근무 시 기상 시간과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초장거리 근무에 중점을 두고, 선실 승무원과 조종사 간의 비교를 포함하여 FRMS가 항공승무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함. 승무원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힘든 일정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영향을 조사함. 또한 관련 사회 법규의 부재가 일과 생활 간의 양호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 승무원들의 피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맹조직을 소집하고 동원하여 연대를 구축하고 피로의 심각한 영향과 승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조정함. 이는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와 ILO, 각국 민간항공 당국 등 국제기구 및 항공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승무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감독을 옹호함. 여기에는 항공사에 근무 시간, 휴식 시간 및 피로 관련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
-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승무원을 위한 처방적 조치와 FRMS 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로 나아가는 2025년 총회 및 그 이후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



C04: 자유화 모델로 인해 공항의 보건안전이 위협에 처했다.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안전과 건강'을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2022년 9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지난 ITF 항공 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완화는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한때 국유화된 산업이었던 항공업계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다. 오늘날 항공업계는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졌지만,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산업이기도 하다.”
- 회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저비용 모델은 승객과 노동자를 위협에 빠뜨린다: 항공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절감 압력은 항공사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망에도 확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 인력 감축, 업무 및 피로 위험 악화, 장비의 품질 기준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은 개선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 진입 장벽이 낮으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저렴한 기업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5년 6월 최초로 ICAO GH 매뉴얼(DOC 10121)을 개발함과 동시에, 비행장설계 및 운영패널(ADOP)의 지상처리태스크포스

(GHTF)는 ‘모범사례 자료’를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2019년 말에 ICAO 지상서비스매뉴얼이 발행되었다. 이어서 GHTF는 제안된 SARPS와 PANS 자료 패키지를 개발하라는 두번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상서비스 주제는 코로나 19 고위급회담(HLCC)에서 논의되었다.

- HLCC에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상처리서비스가 여전히 업계의 중요한 부문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정이 개발되고 시행되기 전에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지상처리 매뉴얼의 최종 제안과 발효는 2026년 7월과 2028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 처음부터, ITF는 이 과정에 관한 실무단을 꾸려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GHTF 회의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써왔다. 실무단의 이러한 노력은 ICAO와 ILO 간의 협약에 근거하며, 협력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직장 내 기본권과 원칙을 담은 ILO 양질의 일자리 의제에 기반을 둔다.
- 이 활동에서 중요한 순간은 결의안이 노동자 보호에 따라 노동권 및 기준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다.

0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ICAO 및 그 업계의 논의 공간에서 공항의 보건안전 영역에서 ITF가 오랫동안 지켜온 위치와 수행해온 업무를 강화하고 공고히 함.
- b. 공항 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된 기준을 수립하도록 공항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와 조정을 강화함.
- c. ICAO 지상처리태스크포스 등 지상처리가 논의되는 모든 ICAO 및 업계 포럼에서 영향력을 확대함.
- d. 전 세계 정부가 ICAO 지상처리 매뉴얼과 ITF 가맹 노조가 만든 매뉴얼의 모범사례에 기반한 노동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을 인정하고 포함시키도록 모든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옹호활동을 펼침.



C05: 수산업의 양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운수노동자를 위한 안전과 건강'을 언급함:

01. 다음을 언급함:

-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백만 명에게 식품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수산업. 많은 노동자가 특히 공해와 규정미준수선박(FONC)에서 근무하는 경우, 장시간 노동, 위험한 해상 환경, 저임금, 부적절한 규제 등 혹독한 환경에 놓여 있다.
- 이러한 쟁점은 천연자원과 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해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업의 노동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공해에서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남획을 통해 관리 및 보존 노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상선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한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효과적인 모니터링,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IUU 어업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 2022년 6월, ILO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본권으로 포함시키며, 산업보건안전(OSH)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산업보건안전을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02. 다음을 인식함:

- 어업이라는 직종은 위험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 사고의 증가는 수많은 인명 손실로 이어진다.
- 주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어업 자원 부족, IUU 어업, 아시아 및 유럽 선박에 발급된 어업 면허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남반구에서 발생한 황폐화는 일자리 감소, 빈곤 증가, 유럽과 미국으로의 이주 등을 야기했다.
-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수천 명의 이주민 어업인들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의 이익단체가 소유한 산업적 어선에서 일하며, 이러한 어선의 선상에서는 착취와 강제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선박의 노동조건은 일반적으로 기국, 실질적 소유권 국가, 해당 국제 협약 또는 ILO C188 어선원노동협약의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수산 부문 거버넌스는 사회적 대화의 부재, 투명성 부족, 부정부패가 특징이다.
- 수산 부문에서 젠더 기반 괴롭힘과 폭력이 우려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ITF는 ILO 협약 190호의 비준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바다, 강,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및 장인 어업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03. 다음과 같이 생각함:

- 어업인들도 임금과 모든 노동조건을 포함한 포괄적 단체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상선의 선원 동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어업인들은, 최소한, 숙련 선원(AB)을 위한 ILO 최저 기본임금 또는 기국의 최저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 ITF가 승인한 단체교섭 협약이 적용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배타적경제수역(EEZs)에서 조업 중인 외국 국적 및 소유 어선 탑승 시 임금은 상선에 탑승한 숙련 선원을 위한 ILO 최저 통합 임금에 대한 ITF의 해석에 따르고/따르거나 이에 필적해야 한다.

04. ITF에게 수산 가맹조직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할 것을 요청함:

- 수산 부문의 노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확대함.
- 제46차 ITF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ITF 수산분과 FoNC 정책을 촉진하고 전파하며 이행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함.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어업인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 및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 조합의 노력을 지속시키고 강화함. 이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또는 의식제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가능하다.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어업인 조합과 전국 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한 로비 및 옹호 활동을 강화하여, ILO 협약 188호와 190호의 비준과 이행을 지원함.
- 어업인 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여 어민들의 부패, IUU 어업, 착취 및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세요.
- ILO와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국제 기구와의 대화와, 어업인 관련 RFMOs와 같은 지역 및 하위지역 기관들과의 대화에 참여함.
- 숙련 선원을 위한 ILO 최저 기본임금이 전 세계 산업적 어업인의 임금 기준점으로 수용되도록 캠페인을 진행함.
- 노동 공급 노조 및 이들의 기국 동료 노조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ILO/ITF 통합 임금을 최소 임금으로 또는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국가의 조건을 통합하는, ITF가 합의한 규칙 및 기준에 따라 FoNC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민 어업인들을 위해 ITF가 양호한 단체교섭협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
- 전 세계적으로 ITF 활동을 확대하여 IUU 어업 근절을 위해 C188 및 FAO의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PSMA)과 같은 그 외 수단을 전국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각국 정부와 사회 파트너들에게 필요성을 알림.

- 자국 수역에서 어선에 승선한 어업인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개선하고, 전 세계 FoNC 어선의 열악한 환경과 이주민 어업인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
- 현지 노조와 협력하여 아직 C188을 비준하지 않은 남반구 국가에서 노동조건을 문서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pH, 어종 이동, 이동 패턴의 변화, 폭풍우 등 기후 변화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함.
- 해산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인권실사(HRDD)를 촉진하기 위해 해산물 브랜드와 함께 ITF 활동을 확대함. ITF는 어업 부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급망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와 조직화 권리, 노동자의 단체교섭 능력을 보호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D01: 노동의 미래 구축하기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노동의 미래 구체화하기'를 언급함:

01.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4차 ITF 총회에서 디지털화는 운수노동자들의 주요 도전과제로 확인되었고 총회는 ITF에 운수업 내 신기술의 영향을 확인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함. 기술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이 부문은 점차 독과점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화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총회는 ITF에 구조적 쟁점에 대해 캠페인하고 신기술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 캠페인 도구를 홍보하고, 최소 한 개 이상의 기술 선도 기업과의 협상에서 업계 판도를 바꿀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노조가 기술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02. 약속한 곳을 언급함:

- a. 2022년 9월 민간항공분과 회의 및 그 회의에서 승인한 '항공 뉴딜 정책'에서 원격 송신탑 사용 시 등 노동자들과 승객에게, 그리고 그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항공기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함.
- b. 2023년 2월 아랍세계 지역 회의에서 차량 호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권리 및 사회적 보호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
- c. 2023년 3월 도시운수분과 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전력화에 관한 노동조합 정책을 개발하고 전력화에 대한 노동 영향 평가를 요구할 것을 약속함(제4 결의안).

- d. 2023년 8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회의에서 청년 노동자들에게 디지털 조직화 도구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제7 결의안), 라틴 아메리카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함(제9 결의안).
- e. 2023년 12월 선원분과 회의에서 운송 부문의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노조 주도의 토론을 주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AI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함(제4 결의안).

- 03. ITF는 창립 이래 128년 동안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운송 분야에 신기술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언급함. 신기술의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도입을 위해서는 항상 노동표준의 설정과 점검, 이행 등 설계 및 이행 시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04. 여성 운수노동자들과 청년 운수노동자, 소수 집단을 포함한 특정 노동자 집단이 운송 분야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불균형하게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함.
- 05.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힘이 커지고 알고리즘 관리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운송 분야의 감시와 자동화를 강화하는 것이 운수노동자와 노조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인식함. 정부와 기업, 투자자, 데이터를 통제하고 사용하는 기타 주체들은 운송과 무역,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권한이 점점 더 커져 전례 없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 06. 성별 영향 분석을 포함하여 2019년 모든 ITF 산업 부문과 지역의 기술에 대한 도전과 대응을 담은 ITF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그에 따른 ITF 위원회 프로젝트와 활동도 언급함.
- 07. 2021년 ITF 집행위원회에 각 경제 자문단을 설립하여 가맹조직들이 각 노동자에 관한 ITF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하며, 진행상황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함.
- 08. 2019년 ITF 라이더 네트워크(Riders' Network)의 설립과, 초국적 운송 플랫폼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각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교섭 가맹조직을 촉진하기 위한 ITF 각 경제 사용인 원칙의 활용, 그리고 2022년 우버와의 글로벌 협약에 이러한 원칙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호주와 벨기에, 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조직화를 이끌어낸 것을 언급함.
- 09.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된 전략적 소송 및 규제 개혁에서 ITF와 그 가맹조직들이 수행한 역할을 인식함.
- 10. 2022 공정한 일자리를 위한 인공지능 보고서와 2023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업무 재편 가이드 등 데이터 및 AI 관련 정책 권고안에 대한 ITF의 의견은 물론, 전 세계 노조 운동 전반에 걸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통된 분석과 요구사항을 담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 세계 노조의 입장문을 2021년에 발간했음을 언급함.
- 11. 정부와 기업, 투자자에게 다음을 촉구함:
 - a. 기술 도입 및 운영에 단체교섭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노동 위험 및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신기술이 직장에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게 도입되고 운영되도록 협의하기 위해 ITF 및 그 가맹조직과 협력함
 - b. 노동자 데이터의 존재를 규제하고 인식하며, 데이터와 이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 제어 권한을 보장함
 - c.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 변화 또는 상실에 직면한 노동자의 보상금, 평생 학습, 재교육, 기술 향상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AI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단체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노조에 제공함
 - d. ITF 각 경제 사용인 원칙 및 플랫폼 경제에 대한 글로벌 노조의 입장에 따라 규제하고, 이를 홍보하며, 존중함
 - e. 기술에 대한 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확립된 양질의 일자리 원칙을 따르도록 함.
- 1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연구와 교육,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신기술 쟁점에 대한 가맹조직의 단체교섭을 지원함.
 - b.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 기업, 사용인, 현장 플랫폼과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가맹조직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함.
 - c.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가맹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d. ITF 가맹조직들을 통해 각 경제 종사자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각 경제의 ITF 외 노동자 조직들과의 협력을 지원함.
 - e. 2025-2026년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된 전략적 소송 및 법 개혁 노력에 있어서 가맹조직을 지원함.

- f. 국제 또는 지역 거버넌스 기관, 국가별 법률 및 규제 포럼의 결과물에 ITF 기술 정책의 요소를 통합하도록 촉구함.
- g. 노동자의 권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정책 개발에 있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
- h. 기술 개발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 노동자 자본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협력함.



D02: 사무직 노동자 채용 및 조직화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노동의 미래 구체화하기'를 언급함:

01. 운수 부문은 변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자 그룹을 채용하고 조직화하는 데 적응해야 한다. 고학력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중간 숙련도의 일자리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일자리로 전환되는 또다른 추세도 있다.
02.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보다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 늘어날 것이고 보다 낮은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03.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은 분명 증가할 것이고 구성원 채용 및 조직화가 가능한,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의 원천이다.
04.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이 새로운 잠재적 구성원 그룹과 노동조합 대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기업 정책과 직무 기능, 일하는 방식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낮고 설득하기 더 어려워보인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노조 가입을 제한한다.
05. 또한 사무직 노동자는 고유의 특징과 도전과제를 갖고 있다. 이들은 종종 업무 압박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업무와 가정 간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은 업무를 조직하고, 때로는 근무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경력과 경력 개발 문제, 경제 침체 시 강등과 해고의 압박과 위협, 불투명한 보수 등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많다.
06. 유니오넨(Unionen)은 ITF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함:
 - 사무직 노동자 노조 가입을 지원하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ITF가 맡은 중대한 역할을 인식함.
 - 글로벌 운수 부문의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실무단을 만들어 실무단 정책에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명백한 목표로 삼는 전략을 제시하고 가맹조직들이 사무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채용하는 것을 ITF가 지원함.



D03: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차원적 단체 보장!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노동의 미래 구체화하기'를 언급함:

우리의 관찰 의견:

01.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 지위를 강요함으로써 단체 보장을 공격하고 있다. 사용주의 목표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모든 노동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임무별 임금과 사회 보호의 부재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02. 특히 플랫폼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은 플랫폼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가치:

03.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특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 조직화하고 집결하고 있다.

04. 이는 권리를 박탈당한 이 노동자들이 승리를 갈망하는 중대한 사회적 비상사태이다.

05. 한 가지 예로, 유럽 지침을 뒤바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 가맹조직들이 벌이고 있는 싸움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06. ITF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및 단체 교섭권 등 모든 노동자와 동일한 일련의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국가 법률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07. ITF도 한편으로는 종속을,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 부정을 의미하는 제3의 지위를 일반화함으로써 고용관계(근로자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 또는 정부의 시도를 거부함.



D04: 상업 항공운수 내 2인 조종사 비행 승무원을 유지하고 승무원 인원 감축 운항을 거부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노동의 미래 구체화하기'를 언급함:

쟁점에 대한 배경

01. 상업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 받았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 조종사 2인 이상이 조종실에 탑승하는 것이 여객기의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이다. 또한 모든 항공 노동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잘 훈련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 안전이 더욱 증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객기는 안전과 운항에 필요하므로 한 명 이상의 조종사가 조종실에 탑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객기 조종사들은 개선된 교육, 더 나은 기술, 적극적이고 지지적인 '긍정적인 안전 문화'의 구현을 통해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02. 자동화와 AI와 같은 신기술로 인해 일부 항공기 제조업체는 일부 항공 안전 규제기관과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비행 중 순항 구간에는 조종사 한 명만 조종실에 탑승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여객기를 설계하고 있다. 상업용 항공 운송에서 '최소승무원운항확대 (eMCO)'('승무원 감축' 또는 '1인 조종사 운항'이라고도 함)라고 불리는 승무원 감축 운항이라는 한 가지 개념이 현재 빠르면 2026년에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03. 승무원 감축 운항의 (근거 없는) 이점은 안전 문제 해결보다는 조종사의 비행 업무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사는 가장 정교한 센서와 계기가 문제를 감지하기도 전에 임박한 문제의 여러 징후를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으며 행동 방침을 정하기 시작한다. 조종실의 업무량을 관리하고 조종사 한 명의 잠재적 무력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비행 승무원이 필요하다. 조종사들의 주된 우려는 자동화 확대는 항공산업을 더 불안정하고 취약하게 만들며 안전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업계에서 이러한 조치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04. 항공 노동자는 항상 새로운 설계와 기술, 훈련체제, 규정이 안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현대에는 항공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당시의 기준에 안주하지 않고 항공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단순히 현재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승객과 승무원은 항상 최고 수준의 안전을 기대하고 이를 누릴 자격이 있다. 따라서 항공업계 전반의 종사자들은 eMCO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 보안, 미래 고용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항공편이 합의 없이 운항되는 경우 항공 노조는 가능한 최적의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반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수준의 상업용 항공 운송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유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다.

조종실에 고도로 훈련된 두 명의 조종사가 항상 있는: 항공 시스템에서 가장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 많은 기술로 대체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24년 10월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05. 다음을 인식함:

- a. 상업용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운송 수단으로, 조종실에 최소 2명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조종사와 모든 부문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항공 전문가들이 안전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 b. 자동화로 인해 일부 항공기 제조업체는, 안전을 위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일부 항공 안전 규제기관과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비행 중 순항 구간에는 조종사 한 명만 조종실에 탑승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여객기를 설계하여, 최고의 항공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조종사의 희생으로 항공사의 투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 c. 새로운 설계와 기술, 훈련체제, 규정은 단순히 현재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 모든 항공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개발되어야 한다.
- d.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수준의 상업용 항공 운송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며, 조종실의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를 더 많은 기술로 대체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06.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최소승무원운항확대'(eMCO)라고 불리는, 상업용 항공 운송에서 제안된 승무원 감축 운항이라는 개념과, 오늘날 승무원 보충 요건을 줄이려는 추후의 모든 시도에 반대함,
- b. 모든 항공 노동자에게 이러한 국면을 경고하고, ITF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고,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 ('ALPA'),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 - 캐나다, 유럽조종석협회(European Cockpit Association), 국제항공조종사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ir Line Pilots Associations)이 시작한 '안전은 2명에서 시작'(Safety Starts With 2)이라는 기존 캠페인과 옹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함;
- c. 모든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안전 규제기관들이 eMCO 여객기 운항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도록 옹호 활동을 함.



D05: 무인 열차 운행에 관하여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노동의 미래 구체화하기'를 언급함:

01. 철도를 포함한 공공교통 시스템의 무인 운행이 노동자나 대중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효율성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인식함. 철도를 포함한 공공교통은 운행하는 각 노선의 특수한 상황과 자연 조건에 항상 대응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또한 고장이나 장비 손상에 항상 대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모든 기술은 노동자가 구축, 운영 또는 감독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나타내므로, 승객과 그 외 서비스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노동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함을 인식함. 인공지능 등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운영할 때는 사람만이 예방할 수 있는 결함과 고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03. 완벽한 기술은 없으며, 자동화된 열차는 탈선 등의 문제를 겪었고, 공공교통 운행에 종사하는 운수노동자들은 사고와 고장을 경험했으며, 기술 도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많은 교훈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따라서 기술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ITF 기술 및 양질의 일자리 현장에 개괄된 대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04. 무인 운전이 현재로서는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여전히 인간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함. 인간 운전자는 훈련과 오랜 경험을 통해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므로, 적절한 훈련과 충분한 시간 동안 열차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들 엔진 승무원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05. 철도 효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화물 수취인, 철도 차량 검사관 및 기타 철도 직종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업무 관리자가 디지털 기술의 유사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인식함. 완전 또는 부분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의 업무가 변하고 업무량이 감소하지만, 충분한 노사 협상을 통해 일자리가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자동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함.
06. 따라서 자동화 및 기타 시스템은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시스템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07. 따라서 제46차 ITF 총회는 가맹 노조들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지속 가능성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ITF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글로벌 캠페인의 요구를 따르고 무인 운영을 포함한 경영진 주도의 효율화 조치에 맞서 투쟁하는 철도 노조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이 캠페인의 확대를 지원함.
 - 열차의 인간 제어 원칙을 위협하는 무인 및 기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가맹조직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철도 부문에서 이 기술 및 기타 디지털 기술 사용의 안전 및 기타 잠재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협력함.

- 위에서 설명한 사항이 철도 부문의 공공 기관과 운영업체, 사용주에게 널리 인식되고 철도 운수업에 대한 공공 정책 및 규정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고, 이를 통해 운수노동자와 승객, 일반 대중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함.
- 협력하여 열차 내 직원의 부재가 승객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휴사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 여기에는 특히 반사회적 행동 및 승객 안전에 대한 그 외 위협과 관련하여 직원이 없으면 승객이 얼마나 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직원이 없으면 장애인과 노약자의 철도 접근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포함된다.



D06: 도로 공공운수 내 자율주행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노동의 미래 구체화하기'를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글로벌 영리 기업들은 수백억 달러를 들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단순화하고 없애면서 세계 경제의 거대한 부문을 파괴했고 앞으로도 계속 파괴할,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개발해왔다.
- 정부 기관은 전 세계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AVs)의 테스트 및 배치를 승인했다.
- 자율주행차 지지자들은 차량 자동화가 도로 안전을 높이고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고와 운전 오류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취약한 도로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 이러한 안전 문제로 인해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공공 도로에서의 운행 허가를 중단했다.
-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술로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간 실험하고 있으며, 빠른 채택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 공공운수는 이미 개인 차량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 공공 기관과 민간 운수업체는 노조에 가입한 버스 운전사의 자리를 없애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 관심이 보인다.
-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공공 자금을 확보하고 노동자 급여를 기업 수익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얻는다.
- 버스 운전사들은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해 노동기준이 낮아지고 협상력이 감소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 노조가 있는 공인 버스운영업체는 승객과 다른 모든 도로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인간 버스 운전사는 일반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 도시 교통에 내재된 변동성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이를 모방할 수 없다.
- 자율주행차로 인한 위협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개선할 적절하고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려면 노조, 노동자,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02. 다음과 같이 결의함:

- 대중교통 수익 서비스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함.
- 공공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배치를 제한하고 강력한 안전 체계를 요구하는 법률 및 규정을 지원함.

- 자율주행차 배치를 고려 중인 경우, 인력 영향 평가,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 프로그램,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법률 및 단체교섭 문구를 지원함.
-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는 공공운수 업체는 차내 작업자 단말기가 탑재된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 적절한 면허를 소지한 버스 운전사가 항상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및 단체교섭 문구를 지원함.
- 자율주행차 배치에 반대하고 단체교섭을 위해 노력한 ITF 가맹조직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



D07: 마이크로트랜짓 (MICROTRANSIT)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노동의 미래 구체화하기'를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전 세계의 공공운수 업체들은 주로 소형 차량으로 운행되며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운송네트워크업체(TNCs)처럼 개별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앱 기반의 주문형 교통수단인 '마이크로트랜짓'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 마이크로트랜짓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공운수 형태로, 고정 노선 서비스보다 승객당 비용이 더 비싸고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 마이크로트랜짓은 고정 노선을 지원할 수 없는 시골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정 노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존의 고정 노선을 대체하거나 이와 경쟁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 마이크로트랜짓은 승객, 노동자, 지역사회에 덜 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고정 노선보다 덜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 마이크로트랜짓은 거리를 혼잡하게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며, 더 친환경적이고 더 효율적인 공공운수 수단으로부터 자원을 빼돌린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트랜짓 업체들은 마이크로트랜짓의 운영상 단점과 실제 환경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모델, 주문형 라우팅 소프트웨어, 소위 친환경 인증서라는 증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 마이크로트랜짓은 비용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화와 불안정한 노동력 사용, 노조가 있는 운수업 일자리의 감소를 장려한다.
- ITF 가맹조직들은 마이크로트랜짓 서비스를 노조가 대표하는 기존의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운영하도록 규정한 협약을 성공적으로 협상했다.
- 가맹조직들은 비노조 마이크로트랜짓 노동자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했다.

02. 다음과 같이 결의함:

- 공공 투자를 위해 마이크로트랜짓보다 고정 노선 서비스를 우선시하도록 지원함.
- 마이크로트랜짓을 위해 고정 노선 서비스를 없애는 것에 반대함.
- 마이크로트랜짓을 구현하려는 공공운수 업체가 고정 노선 승객을 늘리고, 기존의 노조 인력을 일반적인 임금과 복지, 노동조건으로 유지하며, 불안정한 노동력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법을 모색함.
- 고정 노선 서비스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마이크로트랜짓을 제한적으로 배치함.
- 마이크로트랜짓 운영의 핵심 성과지표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조직화되지 않은 마이크로트랜짓 노동자를 조직함.



E01: 글로벌 공급망 내 책임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글로벌 배송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노조의 힘을 키우고, 안전운임제 및 고객 책임을 위한 글로벌 투쟁을 강화하며, 창고업 분야의 멤버십을 확대하겠다는, 2018년 제 44차 ITF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약속 (commitments)을 언급함.
02. 약속한 곳을 언급함:
 - a. 2022년 5월 유럽운수노동조합연맹 (ETF) 총회에서, 운송 계약의 직접 체결을 유지 및 확대하고 철도 부문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노동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약속
 - b. 2022년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서, 지역 공급망 전체에 걸쳐 협동하겠다는 약속 (제1 결의안)
 - c. 2023년 5월 도로운수분과 회의에서, 주요 정부와 공급망 주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안전운임제 캠페인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제 3 결의안)
 - d. 2023년 8월 라틴아메리카 지역 회의에서 선박등록국의 국기(FOC) 캠페인을 지원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 등 무역협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제3 결의안), 파라과이-파나마 수로 내 불공정 경쟁을 해결할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제 6 결의안)

- e. 2023년 11월 도로운수분과 운영위원회에서 아마존 공급망 및 그보다 더 광범위한 전자상거래 부문에 종사하는 운수노동자들을 위한 공급망 책임성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약속
 - f. 선원분과 회의에서 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EU-Mercosur) 협약 내 선박등록국의 국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제1 결의안)
 - g. 2023년 12월 공정관행위원회(FPC)에서 오스테드(Ørsted) A/S 및 미국 자회사에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하겠다고 약속(비상 결의안)
03. 운송 분야의 노동 기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재정적, 산업적 힘이 고객사, 다국적 고객, 데이터 플랫폼, 정부, 투자자, 제3자 물류 제공업체 등 공급망의 다른 부분에 있는 주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함.
 04.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고 운수노동자들의 권리와 조건, 기준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조직하고, 교섭해온 ITF의 130년 역사를 인정함.
 05. 선원들의 삶에 대한 [FOC 캠페인](#), [국제교섭포럼 \(IBF\)](#), [해사노동협약\(MLC\)](#), ITF 해상 사찰단의 강력한 유산과, 공급망의 다른 운수노동자들과 모범사례를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함.
 06. 조직화와 노동자 대표성은 공급망에서 우리의 힘의 토대이고 표준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망에서 파업, 조직화 및 노동쟁의를 취할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함.

07. 2021년 ITF 집행위원회에 공급망 자문 그룹을 설립하여 가맹조직들이 ITF 공급망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그 이행을 감독하며, 진행 상황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음을 언급함.
08. 2023년 [TFG 런던과 체결한 인권 실사\(HRDD\) 계약](#)에 따라 공급망 내 직영 및 하청 운송 부문 전체에 걸쳐 노동권을 존중하기 위해 ITF 및 가맹조직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 선례를 언급함.
09. 이는 2018년 총회 이후 ITF 해상 협정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던, 다국적 고객의 운송을 점검하는 해상 협정 및 사찰단의 데이터를 개발 및 사용하는 [ITF의 해상 HRDD 접근법](#)의 성과를 언급함.
10. 2020년 ITF, [IUF](#), [FNV](#)가 공동으로 설립한 [도로운송실사\(RTDD\)](#) 재단이 유럽 트럭운송의 표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다국적 식음료 기업들과 체결하는 업무에서의 성과를 언급함.
11. 영국에서 운영 중인 소매업체와 수산물 구매업체의 공급망에서 회원 선박 정보와 표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수산물윤리행동동맹\(SEAA\)](#)과 협력한 ITF 수산업 HRDD와, 가나와 태국에서 이주 어업인들의 공급망 조직화를 언급함.
12. 노동조합, 환경, 세무 및 기타 단체가 협력하여 아마존 노동자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구를 위한 [아마존 지불 촉구](#)를 위해 2023년 10월에 개최된 '아마존 지불 촉구 정상회담'에 ITF가 기여한 바를 언급함.
13. 공급망 주체들이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의무적 HRDD](#), 연대책임, [안전운임제](#) 및 기타 법체제 등 노동 기준을 점검하고 시행하고, 노동과 인권 안전 기준을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제도를 위한 캠페인을 가맹조직들이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언급함.
14. 2023년 12월에 열린 ITF 공급망 조직화 워크숍에서 가맹조직들은 ITF가 APM-머스크, DHL과 같은 공급망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공급망 캠페인과 협상, 협약에 대한 가맹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을 통해 조직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마존 공급망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표준 개선을 위한 조직화와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데 동의했음을 언급함.
15. 정부와 사용자, 투자자, 다국적 고객, 모든 공급망 주체들이 ITF와 협력하고 상선 선원을 위한 기업 공급망의 인권 위기에 대한 [ITF 공급망 원칙](#) 및 [ITF 해상 HRDD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
16. 노동조합을 통해 권력을 자본에서 노동자에게로 옮기고, 공급망의 노동 기준을 높이며,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운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ITF의 약속을 재확인함.
17.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공급망 운수 분야의 이주 노동자와 [비표준고용형태\(NSFE\)](#)를 위한 멤버십 및 조직화 전략을 수립함.
 - b. 아마존과 보다 폭넓은 전자상거래 부문 등 공급망 내 모든 운송, 물류 및 창고 노동자의 권리, 안전 및 표준에 대해 다국적 기업과 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탐욕을 종식'시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함.
 - c. 공급망 주체와의 노사 관계에서 [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 190호](#)와 기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우선적으로 이행함

- d. 다음의 개발을 포함한, 다국적 고객과 고객사, 화물 소유주와 함께 운송 분야의 노동기준을 합의, 점검, 시행,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산업 모델을 개발함:
 - i. 공급망 책임성, 노동권, ITF 해상 협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ITF의 해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과 전략
 - ii. 모든 운수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공급망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공급망 주체들과 협상하고 협력할 전략
 - iii.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사찰단
- e.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의 구속력 있는 조약 등 기준의 설정, 모니터링, 시행 및 개선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함과 더불어, 글로벌, 지역 및 국가 공급망 책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가맹조직들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E02: 운수 공급망 전체에 걸친 안전운임 원칙과 노조 설립 권한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언급한 내용:

- ITF에게 안전운임제와 고객 책임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3은 2018년 제44차 총회에서 채택됨.
- ITF에게 글로벌안전운임 캠페인을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3은 2023년 3월 도로운수 회의에서 채택됨.
- 도로운수경제적사용주소위원회(RTEESC)의 업무
- ITF의 항공 뉴딜
- 참고, 유통&물류 운영그룹의 업무

02.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의 확산에 있어서 ITF와 ITF의 도로운수 가맹조직들의 성공을 언급함. 2018년 이후, 안전운임제는 7개국에서 도입 또는 강화되어왔다. 2024년에, 역대 가장 포괄적인 안전운임제 법안이 호주에서 발효되었다. 2024년 6월 기준, 공식 및 비공식 노동자와 피고용인, 도로화물, 여객운수, 각경제 전반에 걸친 자가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39개국의 65개 노조가 글로벌안전운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노조들은 남부가 남부에게, 남부가 북부에게, 북부가 북부에게 서로서로 지원하고 있다. ITF 사무국은 가맹조직의 리더십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가맹조직에게서 배우기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03. 안전운임제에 관한 업무는 운수노동자와 경제, 사회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부정적 영향의 분석에 기반한다는 점을 언급함. 이 분석은 권력을 자본에서 노동자에게로 이동시킴으로써 주요 운수 고객과 각경제 교란자와 같은 경제적 사용주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전운임제는 비공식 노동자와 비표준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한 운수 공급망의 모든 도로운수노동자가 노동조합 대표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치명적인 상업적 압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실현한다.

04. 안전운임제 규제 시스템이 회사 단위가 아닌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조의 힘을 키우고,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가맹조직들은 이 힘을 이용하여 운수업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산업이 되도록 재조직화한다.

05. 안전운임 원칙은 다른 운송수단 전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함. 최근 몇년간, ITF 가맹조직들은 항공사와 정부, 공항과 같은 경제적 사용주들이 자신의 계약망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항공업계에도 안전운임 캠페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물류와 창고업에서, 비공식 및 비표준 고용 형태에 입각한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안전, 기후 변화 보호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졌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부문에 걸쳐 노조의 힘을 구축하고 기준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교훈을 준다.

- 06. 안전운임제와 실사, 그 외 경제적 사용주 전략은 다른 부문과 업계의 노동조합들이 채택할 때 보다 많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점을 언급함. 이는 ITF의 공급망 전략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른 부문의 노조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 07. 위 경험에 기반하여,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공공 안전과 보안, 평등,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용과 그 모델이 노동 기준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함.
 - b. 효과적인 대상화, 조직화, 국제 연대 및 캠페인의 기초로서 주요 시장과 공급망에서 노동 조건과 노조의 존재에 대한 체계적인 매핑을 수행함.
 - c. 산업 전반의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불안정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CBA) 적용을 포함하여, 계약망 의무를 포함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산업 교섭 및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고, 이를 획득하여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을 촉진함.
 - d.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운송수단과 부문에서 가맹조직 주도의 협업과 연대를 도모할 글로벌 및 지역 구조와 역량을 개선함.



E03: 머스크(MAERSK) 공급망 전반의 연대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을 언급함:

01. ITF 머스크(Maersk) 네트워크와 운영위원회는 항만노동자와 선원, 내륙항해 등 해양 가맹 노조들의 네트워크로, 2006년 ITF 총회의 선원항만노동자공동회의에서 설립되었음을 언급함.
02. 이 네트워크는 AP 몰러 머스크(APMM)가 고용한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업무 우선순위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언급함.
03. ITF 머스크네트워크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 주도의 인권실사(HRDD) 전략을 채용하는 등 머스크 공급망 내 권리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04. 2018년부터, ITF는 고객사, 투자자 및 기타 공급망 주체들과 협력하여 공급망의 노동 조건과 권리,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노동 및 인권 기준을 설정, 모니터링 및 시행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멤버십과 단체교섭협약(CB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급망 책임성 관련 업무를 우선시해왔다고 언급함.
05. 이 세계적인 거대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된 운수노동자가 수천명이고, 이 중 대부분이 이미 ITF 가맹 노조에 속해 있음을 인식함.
06. APMM은 엔드투엔드(end-to-end) 운수 서비스로서 육상 물류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통합 운송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함.
07. APMM은 APMM의 제3자 노동에 관한 글로벌 표준에 따라 머스크 하청업체가 포괄적인 노동 및 인권 표준 세트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위반 적발 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을 인식함.
08. 그럼에도 불구하고 ITF 가맹조직들은 머스크 시설 및 공급망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착취와 차별을 확인했음을 인식함.
09. 따라서 노동조합이 내륙 기반 사업(트럭 운송, 창고업, 물류 등)을 강화하려는 APMM의 목적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함.
10. ITF와 ITF 공정관행위원회(Fair Practices Committee)에게 다음을 요청함:
 - APMM 사업체 전반의 운수 가맹조직들을 머스크 네트워크에 초대하고 그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확장하여 내륙 부문(도로, 철도 및/또는 창고업)의 대표성도 포함시킴.
 - 엔드투엔드 물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APMM의 야망에 대응하여 APMM 공급망에 대한 이 위원회의 인권실사 업무를 확대하고 비해양 부문의 가맹조직들에게 맞게 조정함.
 - APMM의 전 사업체에 걸쳐 가맹조직들을 연계하는 합동 조직화 전략을 촉진함

-
- 머스크와 그 공급업체가 머스크의 제3자 노동 정책과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준수하도록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노동자 주도의 HRDD와 데이터 수집, 조직화, 국제 복합 연대를 통합함.



E04: 글로벌 지속 가능 금융 전략 속 인권 및 노동 기준 고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다음을 인식함:

- a. ITF는 이미 가맹조직과 그 구성원들에게 (고용 및 은퇴 모두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가맹조직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노조연맹들과 국제노동조합회의(ITUC)의 지역 및 전국센터, 노동자의 자본을 위한 글로벌노조위원회(CWC), UN이 지지하는 책임투자원칙(PRI), 미국 수탁자리더십포럼(TLF), 미국 기관투자자협의회(CII)와 같은 기구들과,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호주, 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영국 내 그와 유사한 기구들과 협력함으로써 국가별 및 전 세계 노동자 자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 b. 글로벌 지속 가능 금융 의제의 이행은 노동조합이 공정한 전환을 목표로 기후 위기와 신기술 적용에 대응하여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에 대한 투자에서 인권과 노동 기준을 진전시키고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무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 c. 노동조합은 투자망에 환경 및 거버넌스 기준을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놀랍도록 성공적이었지만, 시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양질의 고숙련, 고임금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과 프로젝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의 질과 필수 경제 부문에 대한 기관 자본 배분을 결정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행에 공정한 전환 등 '사회적' 기준 및 관련 지표를 포함시키는 데는 아직 그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d. 노동자 자본 전략의 사용을 확대 및 개선하고 가맹조직이 노동자자본위원회(Committee on Workers' Capital)를 지원하거나 이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책임 투자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홍보하겠다는 ITF의 약속은 2024 - 2029 ITF 총회 비전에 명시되어 있다.
- e. 2018년 총회의 목적에 기반하여, ITF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를 위한 사회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워진 노동자자본위원회(CWC) 전략정책태스크포스를 통해 전 세계 및 지역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자본 전략 업무를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ITF는 PRI와 협력하여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에 관여하는 투자자를 위한 고급(Advanc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 경제, 노동 관련 기준을 검토하는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GRI)의 기술 실무단에 참여하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에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최소 사회적 안전장치, 이중 중대성 및 공정한 전환에 관하여 그 위원회에 조언하는 유럽연합(EU) 지속가능금융플랫폼(Sustainable Finance Platform)에 참여한다.

02. 다음과 같이 결의함:

- a. ISSB가 공급망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후 관련 공시 표준을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인권, 노동 및 WHS 표준, 다양성 및 성 평등, 기회 균등, 비차별, 원주민의 권리 존중, 현대판 노예 등을 망라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준 및 관련 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다음 조직들과 함께 ITF가 지속적으로 해온 업무를 지원하고 강화함: (i)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노동 단체; (ii) ITF 가맹노조가 이러한 이사를 후보지명한, 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이사회 및 투자위원회의 수탁자 이사들; (iii) ISSB와 GRI, 최근 생긴 불평등 및 사회관련 재무공시태스크포스(TISFD)와 같은 지속 가능한 금융기구 등 비정부기구들; (iv) 각국 정부; (v) ILO와 같은 UN 기구;
- b. 특히, 현재 ITF가 맡고 있는 CWC 전략정책태스크포스와 자산운용사책임이니셔티브(AMAI)의 의장직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 및 ESG 공시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준 및 지표를 수립하고, ISSB가 글로벌 불평등 및 사회 관련 공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CWC가 불평등 및 사회관련 재무공시태스크포스(TISFD)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함.
- c. 전 세계 ITF 가맹조직과 노조가 캠페인 및 교섭 전략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할당하고, 재원을 기여할 의향이 있는 다른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CWC 전략정책태스크포스의 후원 하에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4 년간 CWC 사회적기준프로젝트 책임자를 고용하는 것을 옹호함.



E05: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으로서의 파나마 운하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전 세계 소비량의 90%가 해상 노동자에 의해 운송되며, 파나마 운하를 비롯한 주요 수로는 글로벌 인프라의 주요하고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02.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공급망에 종사하는 많은 운수노동자들이 단체교섭협약 등 양질의 노동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03. 파나마 운하의 노동자는 헌법과 기본법, 규정, 단체교섭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특별한 노동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이 체제에는 파업권 대신 노동자에 대한 보상적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장은 파나마운하노동관계위원회(Labor Relations Board)가 시행하며 운하 관리청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도 있다.
04. 수년간의 협상과 중재, 소송으로 인해 선장갑판장조합(UCOC)과 운하 관리청 간의 불안정한 실무 관계, 즉, 현재 UCOC와 사용자 간에 유효한 단체교섭협약이 없는 상태를 상기함. 운하 관리청과 파나마운하노동관계위원회(JRL)의 회피와 지연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05. 다음을 인정함

-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파나마 운하의 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파나마 공화국은 ILO 협약 제87호, 98호, 154호에 모두 서명했음,
- 기본법과 파나마 운하 규정은 단체교섭협약에 대한 권리와 성실한 협상을 규정함,
- 이와 같은 운하 관련 법률은 업무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형평성과 투명성, 균등한 기회 및 노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06. 공급망의 한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면 같은 공급망의 다른 부분에서도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함.

07.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안전, 훈련, 노사 관계, 노동자의 기본권 인정과 관련한 파나마 운하 당국의 남용과 참여 부족에 맞서 공통의 문제를 파악하고 일관성 있고 단결된 입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파나마 운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가맹조직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함,
- 파나마 운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만과 도로, 철도, 민간 항공, 내륙 항해, 창고업에 종사하는 중추적인 노동자들과 노조,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선장갑판장조합(UCOC)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함,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ILO와 함께 파나마에 대한 제소에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파나마 운하 당국과 운하 내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맹조직 간에 존재하는 성숙한 노사관계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파나마 공화국의 새 정부와 함께 3자 (회담) 테이블을 열도록 제안할 것을 사무국에게 촉구함.



E06: 우리 지역 내 ITF 내륙항해 실무단의 구조를 강화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을 언급함:

01. 내륙항해는 강과 호수, 운하(파라과이-파라나 수로/ 파나마 운하/아마존, 시에테 라고스 (SIETE LAGOS))를 통해 이뤄지는 경제, 발전, 국제 무역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로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동료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킨 기후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노동자들이 비공식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02. 또한 우리는 우리가 쟁취한 권리, 심지어 많은 동지들의 목숨까지 끊임없이 단축시킨, 국내운항법 폐지를 통해 우리의 노동과 국가 주권을 해치는 다국적 기업에 개방하려는 극우파의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03. 중요한 쟁점은 노동권과 임금 기준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국제적인 시도인데, 우리는 이 시도가 2023년 11월 20-24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내륙항해 회의에서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04. 이러한 쟁점은 천연자원과 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05.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ITF에 다음을 요청한다:
 - 우리 부문의 노동조합 강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확대함.
 - 정부와 사회 파트너 간에 다음 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지역 내 ITF 활동을 확대함:
 - a. 정부와 사회 파트너 간에 다음 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지역 내 ITF 활동을 확대함 지역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해당 부문의 실제 환경 조건과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연구하고 진단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노동자 모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특히 공정한 전환 측면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함.
 - b. 공급망을 형성하는 전 세계 선박 교통에 대한 이 지역 이 부문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이 활동과 관련된 선주와 기관, 조직, 정부에 연락하여 이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위한 최적의 노동조건과 노동권, 화합을 지원함.



E07: 항공운수노동자의 권리와 자유 현장을 수립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코로나19 팬데믹의 극심한 단계 이후 항공 여행이 광범위하게 재개되면서 전 세계 항공운송 업계의 노동자와 여행객들이 여행 혼란에 빠졌다는 점을 언급함. 이후 긴 대기시간, 항공편 결항 및 지연, 수하물 분실, 직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승객의 불만, 승객에 의한 직원 괴롭힘 증가, 불만 고조로 이어졌다. 도전과제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02. 항공운송업계가 가진 도전과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항공운송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와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저평가라고 언급함. 업무와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인 저평가 현상은 이 부문의 고용의 질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악화시켜 온 장기적인 추세이다. 오늘날 항공업계의 노동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조합되어 있을 수 있다:
 - a. 극도로 낮은 임금;
 - b. 불공정한 일정;
 - c. 과도한 초과 근무;
 - d. 동료 및 여행객의 괴롭힘;
 - e. 교육 부족;
 - f. 계약 뒤집기;
 - g. 업무 강도 강화;
 - h. 도구 및 자원 부족;
 - i. 통합 계획이 부실하고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노동자와의 협의가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극심한 기술 변화.
03. 캐나다 민간 부문 노동조합인 유니포(Unifor)는 위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입법, 규제 및 운영상의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운수노동자의 권리와 자유 헌장(Air Transportation Workers'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을 제정했음을 언급했으며, 이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a. 공정한 임금;
 - b. 안전한 보고 체계;
 - c. 아웃소싱으로부터의 보호;
 - d. 업무 강도 강화 해결하기;
 - e. 고급 교육 제공;
 - f. 공정한 일정;
 - g.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 h. 기술 변화에 대한 발언권.
04. 정부, 항공사, 공항 및 지원 업체는 여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벌금 및 환불 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승객보호규정(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을 제정하여 항공 여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많은 공항에서 노동자를 대체하려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경험을 약속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개선과 보장이 아닌 대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좌절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05. 이러한 무대책의 결과, 노동자와 여행객은 초과 예약 및 결항, 수하물 분실, 정비 문제, 정신이 혼미하고 난폭한 승객, 치솟는 물가 등 골치 아픈 일로 무대책의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과 통화하는 데 걸리는 긴 대기시간, 고객서비스를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작동하는 답답한 알고리즘, 항공 교통 관제 및 항공 서비스 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 형편 없는 여행 경험에 맞는 완벽한 폭풍이 된다.
- 06. 항공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공공의 여행조건이라는 점을 언급함.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여행조건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 07.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항공운송 업계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여행조건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함.
 - b. 고객서비스, 정비 및 수리, 공항 운영, 고객서비스, 소매, 수하물 처리, 항공 교통 관제 등 업계의 모든 하위부문이 캠페인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 운수노동자 및 노조와의 협의 및 협력을 보장함.
 - c. 노동조합이 국가, 하위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구체적인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법 및 규제 변경을 포함한 로비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전문지식, 관련 국제적 배경과 모범사례를 제공함.
 - d. 항공운송 업계의 하위 부문에서 가맹조직 주도의 협업과 연대를 위한 구조와 역량을 개선하여 항공업 전반의 노동조건과 표준을 개선함.



E08: 항공 공급망의 규제 완화 및 파편화의 영향에 맞서 투쟁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다음을 언급함

- a. ITF의 항공 뉴딜은 항공사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업계의 모든 부문에서 지속 불가능한 저비용 비즈니스 모델을 조장하는 항공 서비스망의 파편화를 특징으로 한다.
- b. 이러한 파편화는 항공 서비스망 전체에 걸친 노동자들의 고용 기준을 낮춰 임금과 조건을 줄이고 보건안전 위험을 확대하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을 장려한다.
- c. 특히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위해 열악한 고용조건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구조적인 경쟁 압박으로 인해, 항공 서비스망의 파편화(이하 '파편화')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고용조건을 개선하며 데 장벽을 만들었다.
- d. 2022년 많은 주요 항공 시장에서 발생한 대량 취소와 소위 '인력 부족'은 이러한 파편화된 산업과 지속 불가능한 고용 조건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 e. 이렇게 파편화된 산업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그리고 국가 항공업계 간에 노동자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
- f. 항공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질의 고용을 위한 중요한 산업이다.

02. 다음을 인식함

- a. 항공업계의 파편화로 인해 여러 업체가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하면서 업계에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경쟁이 발생했다.
- b. 국내 항공 시장 내에서 발생한 규제 완화로 인해 항공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고용 기준 및 운영 기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
- c. 동일한 노선을 두고 경쟁하는 항공사 간 경쟁이든, 청소, 케이터링 또는 수하물 처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동일한 계약을 두고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간 경쟁이든, 경쟁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용 기준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 d. 항공 뉴딜은 항공업계 전체의 조정과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e. 최근 몇 년 동안 노조는 부문별 교섭 협의회, 전국 조직화 운동, 범공항 계약, 국가규제기관 등 항공업계의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전략을 개발해 왔다.
- f. ITF 가맹 노조는 항공 서비스망의 파편화에 맞서 성공적인 조직화와 캠페인, 교섭 전략에 대해 서로를 지원하고 조정하면 좋을 것이다.
- g. 어느 나라에서든 성공적인 조직화와 캠페인, 교섭은 새로운 기준점을 설정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파편화의 영향에 대한 투쟁을 진전시킨다.
- h. 항공업계의 사용자들의 네트워크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여 기준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인다.
- i. 공통의 목표를 가진 가맹조직 간에 이니셔티브를 조정하면 권력이 자본에서 노동자로 이동될 수 있다.
- c.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기 위해 이 쟁점에 대해 유사한 목표를 가진 노조를 소집하고 조직화, 캠페인 및 교섭 운동을 지원함.
- d. 파편화와 파편화의 악영향에 맞서 투쟁하는 성공적인 전략을 문서화하고 공유하여 전 세계 노조가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 이러한 쟁점을 방지하는 성공적인 조치를 글로벌 규제기관과 업계 기구들의 글로벌 참여의 기초로 활용함.

03. ITF 민간항공분과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연결성, 서비스 제공의 취약성,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규제 완화와 파편화가 노동 기준 및 국가 발전 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함.
- b. 조직화 및 교섭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공통 사용자 및/또는 사용자 연합, 노조의 존재를 매핑함.



E09: 선주배상책임보험의 비효율성 해결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을 언급함:

01. 선원들이 버려진 선박에 방치되어 열악한 품질의 음식과 물, 임금의 시기적절하지 않은 지급 또는 미지급, 기타 기본적 생활 및 노동권의 침해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열악하고 품위 없는 생활과 노동 환경에 직면할 때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함.
02. 선박이 방치되거나 선원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선원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는 선주에게 유효한 책임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선주배상책임보험은 해양산업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
03. 선원의 권리와 복지를 수호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인도적인 해상보험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있어 유효하고 시기적절한 선주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함.
04. 또한 현재의 선주배상책임보험 제도에 심각한 격차가 있어 다음과 같은 선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선원 관련 해상보험의 신뢰성이 훼손되었음을 언급함:
 - 2006년 개정된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라 버려진 선원의 송환 및 복지에 대한 적시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촉진하지 않아 선원들을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함.클레임 및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소통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선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지연을 겪음.
05. 유효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고 선원 및 선원 가족들과 소통하는 ITF 가맹조직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을 ITF에 요청함.
06. 선주배상책임보험이 선원의 클레임을 지연이나 불확실성 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켜 줄 것을 ITF에게 요청함.
07. (예: ITF 조사단의 업무를 통해) 선박 유기 시 선원 송환 및 복지를 위한 선박의 의무 금융보험 서류를 확인하고 선박의 선주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ITF에 요청함.
08. 국제해사기구(IMO) 및 각국 해양당국과 협력하여 선주배상책임보험의 정기 감사 및 검사를 포함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여, 국제 기준 준수, 보험 증서의 유효성, 클레임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ITF 및 ITF 가맹조직에게 촉구함.

-
09. 선주배상책임보험 인증서와 클레임, 규정 준수 기록의 상태를 추적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이 관리하는 중앙집중식이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구축 과정을 진행하도록 ITF에게 요청함.



E10: ITF와 파리 MOU 간 협력 증진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차원에서 항만국통제(PSC) 체제와의 공식 협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함.
02. 항만국통제 체제와의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 현지 ITF 조사단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추가로 언급함.
03. 선원 복지에 상당히 유익하고 2006년 개정된 해사노동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주요 PSC 체제인 파리 MOU와 ITF와 간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04. 파리 MoU에 따른 항만국통제 조사의 잠재적 비밀관성과 결함에 관한 우려를 인정함.
05. 다음과 같이 파리 MoU의 적용을 받는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에서 선원 복지를 개선하고 해사노동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파리 MoU와의 협력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ITF에 요청함.
 - 항만국통제와 ITF 간 협력을 개선하고 해사노동협약에 대해 ITF와 더불어 항만국통제 조사단의 적극적 참여를 옹호할 ITF 대표자를 임명함;
 - 정기적인 정보 교환 개선, 선원 권리 관련 공동 캠페인 개발,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구축, 전략적 협력 논의 및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기 연례회의 개최를 포함하는, 파리 MoU와 영구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캠페인을 계획할 때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잠재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 MoU에 정보를 제공하고 파리 MoU와 협의함;
- 항만국통제 체제 하의 일부 업무의 결함은 물론 ITF와 항만국통제의 조사 결과 간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선박의 해사노동협약 준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불일치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파리 MoU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눔.
06. 다른 관련 MoU(예: 도쿄와 지중해)에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확대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선원 권리 보호를 개선해야 할 때 유럽해양안전청(EMSA)과 협력할 것을 ITF에 추가로 요청함.
07. 운수업의 새로운 도전과제와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ITF에 요청함.



E11: 국제교섭기구(IBF)에 대한 지지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을 언급함:

01. FOC 캠페인의 76년 역사, 국제교섭기구(IBF)-세계 유일의 국제 단체교섭 기구로 자리잡음-의 25년 역사, 그리고 2023년 ITF가 합의한 25만 명의 선원 6% 임금 인상을 축하함;
02. IBF는 2003년 국제해상사용주협의회(IMEC), 일본 국제선원노무협회(IMMAJ), 한국선주협회(KSA, 번역자 각주-현재는 한국해운협회로 명칭 변경), 에버그린(Evergreen)으로 구성된 선주공동협상단(JNG)과 ITF에 의해 그리고 이들 간에 설립되었음을 상기함;
03. 선박 4,000개에 승선한 약 55,000명의 필리핀 선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IBF 계약이 필리핀 선원들에게 지극히 중요했음을 언급함;
04. 또한 IBF는 해상 사용주와 노조가 FOC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합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단체교섭 메커니즘이며 2023년 모든 유효 계약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함;
05. FOC 캠페인과 IBF의 발전에 있어서 ITF 항만 노동자들의 핵심 역할과 힘을 인정함;
06. 전 세계 ITF 선원 및 항만 가맹조직이 지원하는, ITF 해양사찰단의 역할과 영향력, 힘을 인식함;
07. 특정 지역 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 원칙을 개발하는 중앙 및 지역 협상 모두에서 IBF의 중요성을 추가로 인정함;
08. ITF 선원분과와 항운분과, ITF 총회 대의원에게 다음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요청함:
 - a. 다음을 고려한 IBF의 역할을 강화하고 ITF 해양 계약 수를 늘리기 위한 5개년 전략에 합의함:
 - i. 해양 부문과 해운 경로;
 - ii. 인권과 공급망, 무역 규칙의 변화;
 - iii. 전 세계 무역과 해운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 및 경제적 전환;
 - iv. 항공과 철도, 도로, 창고업 내 기업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
 - v. HCMME 헌장 프로젝트(HCMME Charter Project)에 따른 선박 적용 범위.
 - b. ITF의 대표성이 낮은 지역의 ITF 조사단 수를 늘림;
 - c. IBF와 ITF 해양계약시스템, ITF 가맹조직 국가 단체교섭 계약 외 모든 불법해운계약 시스템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E12: 칠레의 해상연안무역 보호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전 세계 공급망의 책임성' 을 언급함:

01. 상선해군장교연합(SI.MAR)은 다음을 선언한다.
02. 우리는, 칠레 정부가 화물 운송을 위한 해상 연안무역을 개방하고, 편의치적선을 칠레 연안으로 유도하고 외국 상선의 칠레 해운을 장려하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열망으로 제안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03. 이 법안이 연안 무역을 칠레 국적 선박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롭고 재앙적인 예외 조항을 통해 연안 무역 서비스를 저렴한 요율로 제공할 수 있는 외국 선박에도 연안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화물 운송이 더 이상 칠레 국적 선박 전용이 아니며, 칠레 선사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04. 법안에서 제안한 예외 조항은 고도로 숙련되고 대체하기 어려운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트럭 운전자, 철도 노동자 등 다른 운수 부문과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05. 이번 네 번째 연안 무역 개방 시도에서 선원 노조는 정부와 유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지 못했고 국회 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이 법안을 승인하려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함;
06. 현재 정치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정치 세력이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제2독회를 거쳐 현재 논의 중인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07. 칠레의 연안 무역 개방은 칠레의 해양 산업과 현재 칠레 선원들의 일자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권과 항해 안전, 수생환경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함;
08. 국가상선대(National Merchant Navy)를 효과적으로 증진, 강화, 보호하는 해양법과 규정의 변경 및 업데이트에 대해 국가와의 토론에 참여 및/또는 국가에 조언할 공식 기구로서 광범위한 참여와 대표성을 위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확신함;
09. 우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비전을 가진 지속 가능한 해상운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실무단에 참여하도록 모든 주체들을 소집할 것을 칠레 정부에 제안한다;
10. 이 어려운 과정 전반에서 국제운수노련(ITF)이 수년간 보여준 영구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논의 중인 이 법안이 국가상선대를 증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칠레 정부와의 대면 회의에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ITF 최고 당국의 약속을 인정함;

-
11.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보다 광범위한 산업 전략에 따라 칠레 상선대를 증진, 보호,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통합 운송 국가정책의 전반적인 목표의 맥락에서 연안해운업을 되살리는 데 ITF가 우리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
 12. 우리는 모든 ITF 해양 가맹조직들이 공화국 대통령, 경제부, 교통부, 국방부, 노동부, 국회 및 관련 위원회에 지지 서한을 보내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 무역 개방 반대 캠페인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F01: 운수를 지속 가능하게 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지속 가능한 운수업 만들기**’를 언급함:

01.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지하고, 경제와 지속 가능한 운송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맹조직을 지원하고, 사회 및 환경 운동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ITF 제42차 총회에서 채택한 제1 결의안의 약속을 언급함.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운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속한 배출 감축을 촉구하는 동시에, 운송이 모든 사회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재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2020년 4월 ITF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ITF '지속 가능한 운수 정책 프레임워크'를 추가로 언급함.

02. 2015년 파리 협정, 2015년 공정한 전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 국제노동회의(ILC) 2023 공정한 전환 결의안, 2022년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 2023년 COP2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공정한 전환 작업 프로그램 등 기후 행동에 있어 공정한 전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들을 언급함.

03. 약속한 곳을 언급함:

a. 아시아태평양, 아랍 세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지역 회의에서 지역별 지속 가능한 운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승인하고 새로운 ‘공정한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ITF 총회에 촉구할 것을 약속함.

b. 2022년 9월 민간항공분과 회의 및 ‘항공 뉴딜 정책’에서 항공 부문 노동자 주도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전환법 채택을 요구할 것을 약속함.

c. 2023년 3월 도시운수분과 회의에서 전철 노동자 조직화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맹조직 캠페인을 조정하며(제1 결의안),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원하는 전력화를 약속함(제6 결의안).

d. 2023년 3월 도시운수분과 회의에서 도로 화물을 위한 ‘공정한 전환’ 정책 및 실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함.

e. 2023년 3월 철도분과 회의에서 저탄소 운송으로의 전환교통(modal shift)을 지원하는 철도의 공공 투자 및 소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약속함.

f. 2023년 9월 여성운수노동자 회의에서 공정한 전환 산업 계획을 통해 여성운수노동자를 고취시킬 것을 약속함.

g. 2023년 10월 청년 회의에서 ‘미래는 공공교통이다’ 및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캠페인을 강화하고 청년의 관점을 강조할 것을 약속함.

h. 2023년 12월 선원분과 회의에서 새로운 저탄소 선박을 조달 및 설계하는 가맹조직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대체 연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수립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금융안전기금을 조성하도록 선주와 그 외 주체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약속함.

04. 사회 정의 없이는 기후 정의가 있을 수 없으며, 탄소 제로 운송은 양질의 일자리, 안전한 노동조건과 환경, 양질의 노조 일자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운수업을 구축하려면 전환의 기반이 되는 중대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전 세계 수백만 운수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함.
05. 여성 운수노동자, 청년 운수노동자, 소수자 그룹, **비표준 고용 형태**의 노동자, 남반구의 노동자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직장 내 많은 영향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함.
06.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해운업계의 대응을 통해 선원들이 공정한 전환의 중심에 서도록 하기 위해, 2021년에 ITF와 국제해운회의소(ICS),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 공정한전환 전담반**을 설립한 것을 언급함.
07. 특히 청년 노동자에 초점을 맞춰 업계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기후 솔루션의 공동 설계자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2023년 11월에 합의한 ITF-IRU(국제라이파이젠연맹) 공동의 '운수를 위한 공정한 전환 서약'을 언급함.
08. 2023년 11월 ITF와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기타 국제기구가 2030년까지 공공교통 운영을 두 배로 늘리고 공공교통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을 촉구하는 '미래는 대중교통' 성명서에 서명한 것을 언급함.
09. 2023년 4월,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전략적 3자 접근을 촉구하는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민간 항공에 관한 ILO 기술 회의'의 결론에 언급함.
10. 석유, 가스, 석탄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폐지 새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이 현실화됨에 따라 운수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된 특정 도전과제를 언급함. 해양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선원과 항만노동자에게 상당한 기회도 있지만, 항만 터미널 폐쇄, 해양 석유 및 가스 인프라의 해체 및 철거로 인한 도전과제도 있다. 재생에너지 항만 터미널 및 해양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노조 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11. 정부와 사용자, 투자자, 다국적 고객 등 모든 주체에게 다음을 촉구함:
 - a. 지구 온난화를 1.5°C 목표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공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조건을 보호하고 모든 운수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 제로 운수업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행동에 전념함.
 - b. 변화하는 기상상태와 기상이변(예: 폭염, 폭풍, 홍수, 산불)에 맞서 노동자와 보다 넓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는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를 구축함.
 - c. 운송 부문의 실질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북반구의 역사적 탄소 배출국들이 부채 부담 증가 없이 남반구의 전환에 자금을 지원할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며, ITF 정책과 ILO 가이드라인 및 ILO 2023 공정한 전환 결의안에 따른 공정한 전환 원칙을 준수하는 글로벌 기후 금융 패키지에 동의함.
 - d. 국가 보조금과 세금이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 교육 역량 및 안전한 인력 배치 수준 등 사회적 기준과 연계되도록 보장함. 또한 단체협약은 기후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운수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e. 모든 운송 부문에 대한 공정한 전환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전담반 설립 및 단체교섭 등 ITF 및 가맹조직들과 협력함.
12.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전 세계 및 각국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기후 행동 운동에 참여하고, 공익에 기여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없애며, 운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공정한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제로 운수업을 위해 투쟁하도록 모든 가맹조직을 동원하는, ITF의 '기후 정의, 노동자 정의' 글로벌 캠페인을 개발함.

- b. 모든 부문과 지역의 운수노동자들이 직장과 국가, 지역 및 국제 정책 환경에서 공정한 전환 조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확장된 공정한 전환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자원기반을 개발함.
- c. 운수노동자의 권리 기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확보하고, 운수업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저탄소 운송수단으로의 전환교통(modal shift) 추진과 주요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국가 주도의 투자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확보하는 데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정책 기관들을 동참하도록 함.

- d.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고 운수노동자들에게 전환의 주요 측면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권을 부여하는, 주요 사용인과 공급망 주체들과 공정한 전환 협약을 체결함.
- e. 공정한 전환 기준을 포함하고, 노동조합 참여의 중요성을 특히 중시하며, ITF의 [인권실사\(HRDD\)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정부와 다국적 기업, 투자자를 위한 통합적인 환경 및 인권실사 접근법을 개발함.



F02: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철도에 투자함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지속 가능한 운수업 만들기**’를 언급함:

0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철도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이해함. 디젤 열차는 비행기나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1인당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총회는 현재 전기 철도가 화물과 승객 모두 육로로 대량 수송하는 데 가장 친환경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02. 2030년까지 고속 및 일반 여객 철도 교통량을 모두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EU의 철도를 통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이니셔티브를 환영함.
03. 영국 정부가 혁신적인 고속철도 프로젝트인 HS2를 삭감하고 대신 그 프로젝트 자금을 도로 유지보수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을 규탄하며,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04. 철도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고 저렴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운수 투자, 기금 및 요금에 관한 선언문을 기반으로 노동조합과 ITF의 우리의 공공운수 (OPT)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05. 최근 중국-유럽 동부 화물 회랑의 철도 화물량 증가로 인해 부각되고 있어, 국내 및 국제 철도 화물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함.

06. 철도를 갖춘 정부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철도를 기후 변화에 맞설 해결책으로 여기고 철도 네트워크에 투자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
- b. 대중교통의 사회적 모델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철도 네트워크에 투자함.

07.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a. 모두를 위해 저렴한 여객 철도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조직들과 함께 가맹조직이 속한 각국 내 모범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공공운수 투자, 기금 및 요금에 관한 선언문을 기반으로 함.
- b. 철도에 대한 공공기금과 공공투자를 옹호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글로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가맹조직들이 공정한 전환이라는 목표에 따라 자국의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을 지원함.
- c. 단거리 항공편에서 철도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가맹조직들과 함께 고속철도 서비스 증편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
- d. 캠페인을 지원하고, 철도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수립한 캠페인의 증거자료를 공유함.
- e. 철도에 대한 공공 투자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공유함.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철도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이익은 원래 투자 가치의 두 배 이상일 수 있다.



F03: 통합철도회사의 해체와 공공운수 부문의 민영화 저지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지속 가능한 운수업 만들기**’를 언급함:

01.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운영 및 인프라를 갖춘 통합철도회사를 해체하고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와 정당, 그 외 의사결정권자들의 시도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02. 철도가 환경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면 운수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더 많은 운송수단이 철도로 전환되면 배출량과 자원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국영철도회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ITF는 이렇게 필수적인 전 세계 철도를 강화하는데 전념한다. 우리는 통합 국영철도회사가 운수 부문에서 기후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04. 운영과 인프라를 분리한 경험은 여러 곳에서 철도 운수와 운영, 안전의 악화로 이어졌지만,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평가 절하를 야기했다.
05. 철도 시스템의 자유화 및 민영화로 인해 개별 국가의 철도 네트워크에 민간 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임금 및 사회적 덤핑, 저비용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품질 악화 및 그로 인한 철도 안전 악화, 심지어 파산 등 수많은 결과를 낳았다.
06. 앞으로 철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공공 서비스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통합철도회사를 해체하고 철도 시스템의 일부를 민영화하고 매각하려는 개별 국가의 모든 노력에 반대한다.
07. 영국에서는 철도의 분할과 민영화가 승객과 노동자에게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민영화로 인해 철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악화되었으며, 노사 관계가 악화되고 사용주는 노동자의 조건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민영화의 실패로, 영국의 새 정부는 철도 여객 서비스를 공공 소유로 환원하고 운영과 인프라를 하나의 통합 철도로 재통합하고 있다.
08. 우리는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 서비스 목표를 가진 공공 소유의 통합철도시스템이 필요하다. 철도 인프라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새로운 경제 모델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09.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동성이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공공 서비스의 이동성은 공공 소유 철도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회사의 철도 직원들은 공동으로 공공철도 운수업이 계속 운영되도록 유지한다. 인프라와 운영이 분리되면 철도 시스템이 악화되고 서비스가 악화되며 일자리와 운송 서비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통합철도회사의 단체교섭은 이 부문의 노동 및 고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남아 있어야 한다.

10. 유럽의 경우, 유럽운수노조연맹(ETF)은 공공 소유의 통합철도회사를 해체하려는 정치적 경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든 ITF 가맹조직들은 전 세계 철도부문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보다 결연히 단결할 것이다.

11. 피고용인을 희생시키는 또다른 정책 대신 미래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확대하며 기후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도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세가 필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를 위한 ITF 캠페인을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관점을 더욱 강력히 대변할 것이다.

12. ITF가 촉구한 행동:

- 통합철도회사의 해체와 공공운수 부문의 민영화 반대
- 해당 국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다 강력하게 이 입장을 표명함.
- 다른 조직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운수 정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협력함.
-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철도 개요를 개발함.
- 부문 간 지원 등, 통합철도회사 해체에 맞서 투쟁하는 가맹조직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함.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를 위한 ITF 캠페인의 가시성과 효과성을 증대함.
- 미래를 위한 양질의 철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함.



F04: ITF 연안대륙붕정책 검토

2024년 10월 13-19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46차 ITF 총회, 2024 - 2029 ITF 총회 비전 중 ITF의 요구 ‘**지속 가능한 운수업 만들기**’를 언급함:

01. 해양 석유 및 가스 인프라는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언급함. 따라서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 이후 이 인프라의 철거가 고려되었으며,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협약)과 1982년 유엔 해양법에 관한 협약(UNCLOS)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02. 또한 이러한 인프라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노후화되도록 방치되어 철거 시기를 훨씬 넘긴 상태라는 점을 추가로 언급함. 운영업체들은 해체 작업의 규모를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규제 당국이 강제할 때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03. 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특히 해체 작업을 고려할 때 해양 석유 및 가스 회사가 폐기된 인프라의 철거와 재활용, 처분과, 육상 및 해상 부지의 정화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해당 현장의 기존 인력에게 양호한 노조 노동조건 하에 안전하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
04. 현행 ITF 연안대륙붕정책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해상 풍력, 해체 작업, 해저 작업, 케이블 설치 등 해상 석유 및 가스 이외의 다른 작업 범위를 모색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05. ITF에게 다음을 요청함:
 - 연안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가맹조직들과 연안태스크포스가 관리한 ITF 연안대륙붕정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함.



WWW.ITFGLOBAL.ORG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49-60 Borough
Road
London SE11DR
+44 (0)20 7403 2733